再刊

交隣須知

一

國費

名稱	第	購入年月日
	五	大正　年　月　日

仁川府

朝
40
17

大日本帝國紀元二千五百四十三年

再刊

交隣須知

外務省藏版

明治十六年二月印行

明治十六年二月七

六日出版板

朝鮮總督府圖書館藏書之章
昭和5.10.5
古18342
古朝 40 17

緒言

夙ニ聞ク昔日宗氏ノ交ヲ朝鮮ニ通スルヤ文運未タ開ケス象胥ノ官ナシ唯釜山浦公舘駐留ノ我人民居常其耳聞スル所ノ方言ニ從テ纔ニ意ヲ通スルヲ得ル耳後實永正德年間雨森芳洲屢宗氏ノ命ヲ奉シ釜山ニ渡航シ彼ノ譯官ニ就テ朝鮮語ヲ學ヒ大ニ通曉スル所アリ嘗テ朝鮮語學書ヲ編輯シ名ケテ交隣須知ト云其書各物ヲ部分シ題字ヲ行頭ニ冠シ以テ其義ヲ解シ或ハ其意ヲ釋ス於是宗氏初テ象胥ノ官ヲ設置シ之ヲ五人通詞ト稱シ此書ヲ授ケ學ハシム爾來譯學ノ士輩出修正増補スル少ナカラス且ツ隣語大方等ノ撰アリテ象胥ノ學漸ク備ル芳洲草創ノ功甚タ大ニシテ後ノ諸氏

脩飾ノ力亦盡セリト謂ヘリ然レモ惜ムヘキハ其朝鮮原語ト稱スルモノ多クハ東陬ノ郷音相交リ訛言亦鮮カラス以テ今日學士縉紳應酬款晤ノ用ニ供スルニ足ラサルヲ知ル蓋シ當時兩國交際ノ道格阻シ我人民ノ往來スル釜山浦一掌大ノ僻地ニ止リ公館樊圍外ニ出ツル能ワス近邑ノ人ト雖モ恣ニ語言ヲ交ユルヲ得ス況ヤ彼京城紳士ニ値遇シ親シク其京音ヲ聞ニ於テヲヤ是レ此書ノ今日ノ用ニ適スルニ足ラサル所以ナリ明治九年新條約始メテ成リ兩國人民寛優貿易ノ道開ケシ以來各自交通ノ便ヲ得タリ時ニ予象胥ノ官ニ承乏シ命ヲ外務省ニ奉シ此書ニ因テ更ニ增補校正ヲ加ヘ世ニ公行セントシテ輔助其人ヲ得サルニ困ルシム爰ニ山口

縣人寶迫繁勝ナル者笈ヲ負テ釜山ニ來リ専朝鮮語學ヲ修ム其志篤ク學大ニ進ム明治十二年繁勝東京ニ赴ントス予之ニ語テ曰今本省朝鮮語學書印刷ノ舉アラントス予夙ニ其業ニ熟セリ望ムラクハ本省ニ抵リ朝鮮諺文ノ活字製造ヲ由請スヘシ繁勝之ヲ本省ニ具申ス本省之ヲ允可シ日韓活字及其機械ヲ付與シ且繁勝ニ印刷ノ事ヲ命シ更ニ予ノ校正ヲ賛助セシム繁勝以爲ク此書傳寫ノ久シキ譯文亦誤謬アラント即チ宮内省出仕近藤芳樹加部嚴夫ノ兩氏ニ就テ痛ク和譯ノ質正ヲ加ヘ歸テ之ヲ予ニ報ス因テ我釜山語學所雇朝鮮國江原道ノ士金守喜ト謀リ更ニ校正ニ從事ス守喜固ヨリ八道語言ニ精シ頗ル删正スル所アリ偶京城三四ノ學士釜

山ニ來ルニ會接ス依テ之ヲ示シ再其當否ヲ質ス學士ノ說ニ今ヲ距ル十年前ヨリ我カ邦言語一變セリ是時世ト人情ノ轉移ニ縁テ然ルナリト就テ之ヲ質スニ支吾スル者殊ニ多シ乃其ノ緣由ヲ示省ニ具陳シ更ニ彼ノ縉士ニ依賴シ務メテ訂正ヲ乞ヒ頗ル增損スル所アリ明治十三年五月ニ至リ終ニ大成スルヲ得此書從昔日ノ面目ニアラス抑往昔芳洲ノ此ノ書有ル唯一藩司命ノ用ニ供スルニ在ルノミ今官刋ヲ得テ廣ク世ニ行フニ至ル豈此語ニ志スモノ望外ノ幸ニ非スヤ予菲拙劣妄リニ訂正ノ任ヲ受ル若遺漏アラハ伏テ請フ后ノ君子之ヲ匡正セシコヲ

明治十三年五月　外務省雇朝鮮語學教授浦瀨裕識

粤自日韓交隣已歴三百餘年　貴國之人駐留釜山一掌大之港而行住聞見不移公舘藩籬之外惟以弊邦公役輿儓無格之語習於耳邊大畧通意矣夙聞寶永正德年間對馬州嚴原藩士雨森芳洲氏屢作渡航就學韓語大至通曉肇著編輯名曰交隣須知伊後譯學諸氏追撰隣語大方象胥官之學於斯爲盛而芳洲氏之功自是寂者然文運未開私交相阻無由明證確質之路矣何幸天地回泰日月孔昭惟我
主上殿下踐祚十有三年煥然文治方有綿遠通信之意而際以和隣之議首出於　貴邦敦約盟申於丙子之秋遂開港釜山仁川元山等地公使絡繹於萬里商民蹈舞於四街賦有唇齒輔車之誼則其寛優應對之節務莫急於語學一欵耳以來明治十二年對馬州士族浦瀨裕先生以年

邵鍊熟之人時在象胥之官承命外務省受新造日韓活字與器械增補交隣須知四册隣語大方三册官刋廣布延今四五年貿易酬應之道比前倍曉然其語律之尊卑字義之闕畧多有疑晦未詳處每對卷輙恨之特以再刷之意進告于駐劄本港總領事總領事前田白金大人即三港公務周察之官也一自渡航之後心扶倫常愛民無彼我之殊信隣一念已所孜々乎語學今因浦瀨先生之所告具申外務省經承允可而重修補正之任專委於浦瀨先生先生亦與余頗肺通情已三載矣今當奉官令釐語之日要余同硯論疑問難廣攷博質期於極究精微縱研査淬礪應晝宵確論乃至兩個月卒業更使周防人中谷德兵衛印刷之俾爲日韓萬口芳流千秋云爾此漫閱淺識實不敢當事係兩國之緊務固難謀退

永遠同聲之擧而及其搢紳迎接之日不貽問荅損體之羞公私通報之
地無見書牘失格之傳則寔我兩邦事業先倡於宇內萬國者也校譬告
諭又請一序共爲僉始終相孚不得固辭玆忘拙陋贅陳於原序之尾惟
新譯學諸君子不鄙殊蹤之鑑回恭看熟覽新證明舊或破益加勉旃

陽曆明治十六年五月

陰曆癸未四月下浣

大朝鮮國慶尙道大邱府居淸湖士蔡奎庠謹識

交隣須知 隣語大方
釐正引用書目

書經諺解　詩經諺解　四書諺解　倭語類解　全韻玉篇

訓蒙字會　千字文　以上朝鮮版本

古音梯解　萬葉集畧解　訛詞考　貞丈雜記　語學訓蒙

三才圖繪　本草綱目　康熙字典　てにをはひも鑑

凡例

隣語大方亦此例ニ依ル

嘗テ聞音語ハ何レノ國ヲ論セズ其時世人情ニ隨テ變換スト宜ナル哉茲ニ朝鮮ノ音語ヲ熟惟スルニ往古中葉近世ノ三變アリ其古音ハ則四書五經ニ諺解ヲ加ヘタル音ノ如シ蓋シ此古音ニ兩音ア

リ其兩音分レテ中近ノ變ヲ生シタルモノヽ如シ其變換枚舉ニ遑アラズト雖其大綱ヲ揭載スル左ノ如シ餘ハ推考スベシ

古言二種

甲ノ古音 中葉多ク之ヲ用	乙ノ古音 近世多ク之ヲ用
도라도 도곤	두라두 두곤
ᄂᆞ하ᄂᆞᆯ	느하늘
ᄅᆞ기ᄅᆞᆷ 구ᄅᆞᆷ	르기름 구름
로도로혀 서로	루도루여 서루
오어려오니 뵈오니	우어려우 뵈우니
모너모아모 나모	무너무아무 나무
ᄉᆞᆸᄂᆡ벼ᄉᆞᆯ	스습네벼슬
ᄎᆞ마ᄎᆞᆷᄂᆡ아ᄎᆞᆷ 침ᄎᆡ	츠아츰 김최 (치아침 김치)

古中今三體比格大畧

슴 무슴
가 잇가
간 잠간
싀 갈싀
거 거시니
의 사룸의
제 이제
줄 그런줄
즈 일즉
고 죠곰
ᄃᆞ 반ᄃᆞ시
ᄃᆡ 부ᄃᆡ어ᄃᆡ

슨 무슨
싸 잇싸
싼 잠싼
씨 갈씨
새 새시니
에 사룸에
쎄 이쎄
쑬 그런쑬
쓰 일쓱
굼 죠쑴
드 반드시
듸 부듸어듸ノ類ナリ

古 앏픠 잡오라 이러틋시 소뢰 마리

中 앏픠 잡아라 이러투시 소릐 同

今 압페 잡어라 이러트시 소리 머리ノ類ナリ

轉換語大畧

皮ナ 가죽 爽ナ 시원 事ルナ 셩기 苦キナ 시니라

全キナ 아주 力ナ 심 님금ナ 인군 현마ナ 셜마

蝙蝠ナ 박쥐ノ類ナリ

中畧語比例大畧

사오나ナ 사나 부으롬ナ 부름 으흐롬ナ 으름

나안듯ナ 난듯 보옵소ナ 봅소ノ類ナリ

下畧同前

ᄒᆞ다一가 보내一여 ᄒᆡ一야 ᄆᆡ一야 ノ類ナリ

轉音普通大畧

註ノ字ヲ쥬 正音ハ주　非節ヲ비쳘 正音ハ비절　疎ヲ수 正音ハ소　懲ヲ증 正音ハ징

操ヲ주 正音ハ조　恠ヲ끄 正音ハ괴　舍ヲ사 正音ハ샤 ノ類ナリ

右摠體轉換ノ音韻全ク體面ノ換ルベキモノナレドモ變化ノ起ル年淺クシテ全國僻陬ノ地ニ周洽ナラズ尙古音ヲ用ユル者十ノ二ニ居ル故ニ暫ク兩體ヲ併存スト雖獨リ物名ニ至リテハ新稱ヲ唱ヘザレバ解曉スル能ザルモノ多シ請學者親驗アランコトヲ

天文　一　時節　六　晝夜　十　方位　十六
地理　十八　江湖　二一　水貌　二四　舟楫　二六
人品　二八　官爵　三五　天倫　三八　頭部　四三
身部　四六　形貌　五二　羽族　五四

朝鮮總督府圖書館藏書之印

再刊交隣須知卷之一

對馬嚴原藩士雨森芳洲編輯
對馬　浦瀨裕校正增補
周防　中谷德兵衛印刷

天文

天

天ガ眞ニ清明ニゴザル
하늘이참청명허외다

日

日ガトク正午ニモナリタサウナレドモクモリテトクトシレマセヌ
히가볼셔졍오나되엿스련마는흐리니ᄌᆞ세(仔細)모르개소

老ハ正音로

月	돌이 볼그니 심심헌 뒤 말솜이나 허옵시다	月ガ明カニレテサビシイホドニ噺ナリトモイタシマセウ
星	별이 하늘의 죵죵허엿스니 맛치 쏜쏜이 진진쥬 ᄀᆞᆺᄉᆞ오	星ガ天ニアツマリテアウド紐ノ切レタ眞珠ノヤウニゴザル（種々）
老人星	노인셩은 남방의 나되 보는 사롬은 쟝슈ᄒᆞᆫ다 허지요	老人星ハ南方ニ出テ見ル人ハ長壽スルト云ヒマス
三台星	삼틔셩은 인간 삼공의 응헌 별이라 허오	三台星ハ人間ノ三公ニ應ズル星ト云ヒマス
參星	솜셩과 샹셩은 서로 보지 못허는 별이라 허오	參星ト商星ハ互ヒニ見合ヌ星ヂヤト云ヒマス
日蝕	일식헐 적의 통의 물 담어 보면 분수를 안다 허옵네다	日蝕スルトキニ桶ニ水モリテ見レバ分數ヲシルト云ヒマス
月蝕	월식은 샹히 니르기를 개가 버혀 먹는다 허옵데	月蝕ハ常ニイフニハ犬ガ切リテ食フト云ヒマス

日暈
히가 귀역쐴두랏숩네다
日ガカサキマシタ

月暈
돌이 귀역쐴두랏소
月カ耳カチカケマシタ

明
창이 볼그니 동이 터오는가 시푸외다
窓カ明ルイニヨリ東ガシラシタサウニゴザル

暗
어둔밤은 홰쌀거둔니개소
クライ夜ハタイマツトモシテ廻ランシヤレヨ

朗
그집은 진실로 명낭이 잘지엿네
ソノ家ハゲニモ明朗ニヨク作リマシタ
眞實

晴
개이니 혼이를 쐬다가 다시 비오면 죠흘듯허외다
晴タニヨリ一兩日アリテ又雨ガフラバヨウゴザリマセウ

照
돌이 창의 빗취여 쓰니 소랑허와 조틈이 업네
月ガマドニウツリテ心カサヘテチムケガアリマセヌ
窓

昏

날이어두워쓰니그만ᄒᆞ고도라가옵시요

日カクレタニヨリソレマデニシテカヘラツシヤレマセヨ

漢

은하슈는하ᄂᆞᆯ가온ᄃᆡ 셋쳣구나

銀河水ハ天ノマン中ニヒロガツテナル

曀

ᄒᆞ리니날이팀팀(沈々)ᄒᆞ야명낭치아니허오

クモリテ日ガウスグラクテ明朗ナリマセヌ

風

ᄇᆞ롬이사나오니ᄇᆡ가못나올새시푸외다

風ガアレイニヨリ船カキマイカトオモヒマス

東風

동풍이부러쓰니응당(應當)ᄇᆡ가오개싸

コチガ吹クニヨリキハメテ船ガマヰツウ

西風

서풍이급히니러나오

ガ急ニ吹キオコリマシタ

南風

남풍이불면사ᄅᆞᆷ의몸에해롭소

ハヘガ吹ケバ人ノ身ヲ害シマス

北風

北風カ吹ケハ木ノ葉ガ落ナマス
북풍이불면나무닙히써러지옵네다

東南風

ハヘゴナガ吹ニヨリ止メバヨウゴザル
동남풍이부니굿치면됴켓소 (東南風)

東北風

北ゴナカ吹ニヨリ上ニ漂流シタ舟ガマキアウト思ヒマス
동북풍이부니좌도에표풍ᄒᆞᆫᄇᆡ가올샤시푸외다 (東北風 左道 風)

西南風

ハヘ西カ吹ニヨリ下モニ漂流シタ船カマイリサウニゴザル
서남풍이부니우도에블녀가던ᄇᆡ가올뜻허외다 (西南風 右道)

西北風

アナジカ吹ニヨリ船ノイリテユクニヨロシイ
서북풍이부니ᄇᆡ드러가기도겟지 (西北風)

橫風

ヨコニ吹ク風ハツナバニ吹テコソ船ノユクニヨウゴザル
마루부는ᄇᆞ룸은덜부러야ᄇᆡ가기도겟소

逆風

逆風デモヒドクフカヌニヨリヒライテデモユキサウニゴザル
역풍이라도ᄆᆡ우부지아니허니ᄇᆡ스기노와도갈뜻허오

順風 슌(順風)풍이 년(連)허여 부니 빈나 올새시푸외다 順風カツヅイテ吹ニヨリ船カマ井ラウトオモヒマス

風止 ᄇᆞᄅᆞᆷ(風)이 긋(止)치니 죵용(從容)허외다 風ガ止ミテシヅカニゴザル

殘風 잔풍(殘風)ᄒᆞᆫ 날에 히변의 가셔 놀면 즈미(滋味)잇슴네다 ナギノ日ニ海邊ニユキア遊ベバオモシロウゴザリマス

旋風 회리ᄇᆞᄅᆞᆷ이 부니 눈의 몬지 드러 민망(憫忙)허구나 辻カゼガ吹ニ付目ニゴミガイリテナンギナ

急風 급(急)ᄒᆞᆫ ᄇᆞᄅᆞᆷ(風)이 부(吹)니 아무거시나 부러질새시푸외다 急ナ風ガ吹テ何物デモオレサウニゴザル

雪 눈(雪)이 만이 와서 싸여 쓰니 산산 집집의 빅차일(白遮日) 친듯 허외다 雪ガタクサンニ降リテ積リタニヨリ山々家々ニ白ヒ日チイチハリタヤウニゴザル

雲 구름(雲)이 모(集)이고 비(雨)오실새시푸외다 雲ガ集テ雨ガフリサウニゴザル

雨
雨ガフリテ晴タニツキ草木ガカガヤキマス
비오다가개이니초목이빗나겟소

驟雨
夕立カキサウニアル
소나기올새시푸다

雨雹
ヒヤウカトリ収メ前ニフレバ穀モツカ皆落ナル
우박이츄슈젼의오면곡식이다셔러치겟다 (雨雹 秋 食)

霰
霰ガタントフリテ丁度米ノフルヤウニゴザリマス
쌀락눈이만이오니맛치쌀이ᄂᆞ려지는듯허외다

霖
長雨ガツヾクニヨリモハヤ晴タフバヨウアリマセウ
장마가디리허니그만개이면됴흘뜻허외다 (霾 支離)

細雨
細雨カツ、イテヤサイガイキヤテマス
세우가ᄲᅮ리니ᄂᆞ무리사라나옵네

六花
雪ヲ六花ト云フ
눈을뉵화라허ᄂᆞ니라

霜

霜ガトクフリタニヨリ漸漸日カ寒ムカリマセウ

서리가볼서와쓰니점점날이칩ᄉᆞ오리다

着霜

シモカ深山ニ降リタニヨリ木ノ葉カ黄ミテ皆落ケル

서리가만이오니나무닙히누르러다써러치겟다

露

草ノ葉ニ露ノ浮タノハ見ゴトニコザル

풀닙헤이슬이민친거시보암즉ᄒᆞ다

霧

霧ガオビタダシウカケタニヨリ對馬ノ山カ見エマセヌ

안개가ᄆᆡ오셰여쓰니ᄃᆡ마쥬州산이뵈지아니허옵ᄂᆡ다

霞

ヤケカ夕ヘト朝ニカケテ朝ノヤケハ雨ガフリ夕ノヤケハ晴ル、ト云ヒマス

놀이져녁파아침에쓰니아침놀에는비오고져녁놀에는개언다허옵네

雷

雷ノ聲ガ震動スルニヨリ雨ガタントフリマセウ

우레소리가진동ᄒᆞ니비가만이오리다

電
번개허니어둔데잇스면번쩍번쩍허여무섭소외다
イナビカリカシテ暗イ處ニチレバピカ〱トシテオソロシウゴザル

霹靂
벽녁소리가무섭소외다
霹靂ノ聲ハオソロシウゴザリマス

天動
누에가끗치못지은젼에텬동(天動)허면다부리옵네
蠶ノ繭ツクラヌ前ニカミナリガスレバ皆スタリマス

震動
진동이란말은아모거시라도만이모여서덤벙여요(擾)란(亂)헌거슬진동이라허옵네다
震動ト云フ言ハ何モデモヨケイニ集リアウロタヘサワグチ震動ト云ヒマス

虹
므지개쎗쳐쓰니빗치오식이어린듯허외다
虹ガヌッテ色ガ五色ノタナビキレヤウニゴザル

旱
마무니곡식(食)이다모르랴ᄒᆞ다가ᄒᆞ로비에사라나니
日ヂリデ穀物ガ皆カレソトシタニ一日ノ雨デ生キ出ア

マコトニスグレマシタ
파연긔묘히외다 (果然奇妙)

快晴

天氣ノ晴カカフ無用ノ雨傘ヲ持テ來タ
날이개인후에부질업시우산을가져왓고나 (後 不貲)

牽牛

牽牛ハ織女ト雨主デ天上ノ星デゴザナサル
견우는직녀와냥쥬ㅣ니천샹별이시니라

織女

織女ハ天ニテ布オルコトヲスルト云ヒマス
직녀는하늘에서뵈ᄶᆞ기를ᄒᆞᆫ다허옵네

七星

七星ハ運數ヲ守ルト云ヒマス
칠셩은운수를직힌다허옵네다

飄風

飄風ハ飄々ト吹ク風デゴザル
표풍은삽삽히부는ᄇᆞ롬이로세

暴風

ハヤテカオコレバオソロシイ
폭풍이니러나면무서오니라 (暴風)

急雨	急ナ雨ガソヽグヤウニフル 급흔비가붓드시온다
新雨	名山ニ雨ヲ祈リニ行キマセウ 명산의비를빌나가옵세
瑞氣	瑞氣ハメデタイ氣運ヲ云フ書デアル 서긔는아롬다온긔운을니르는말이라
靄	靄ハ烟リデモナクキリデモナケレドモ日ノ光リヲ蔽ヒマス 애는년긔(氣)도아니요안개도아니로되날빗출마리옵네다
二十八宿	二十八宿ヲ各々分野ヲシリマス 이십팔슈로각각분야를아옵네다
彗星	彗星ハヨカラヌ星ジヤト申シマス 혜셩은길(吉)치아닌별이라허옵네다
南斗星	南斗星ハ壽限ヲ定メナサルト云ヒマス 남두셩은슈한을뎡허신다허옵네다

北斗星

北斗星ハ福祿ヲ點指サズケナサル

북두셩은복녹을뎜지허시ᄂᆞ니라

海霧

海ニ霧ガ多イ

바다에안개가만커든

換風

風ガ換リタニツキ舟ナコシラヘルサウニゴザル

환풍ᄒᆞ기의비질허는가보외다

地震

地震ガヲソロシウゴザル

디진이무셥ᄉᆞ외다

時節

春

春ハ百草ガ生ジテスベテノ種ヲ植ルニヨリ四時ノ中ノ第一デアリ

봄의는ᄇᆡᆨ초가나고온갓씨아ᄉᆞᆯ심으니ᄉᆞ시즁의웃ᄯᅳᆷ이요

夏

夏ハ日ガ甚ダアツク長雨モツヅイテメイワクニゴザル

녀름은 날도 심히 덥고 장마도 지리ᄒᆞ니 민망허외다 (霖 支離 憫忙)

秋

秋ハ日ガスズシクシテ秋収モシ新物ガデマス

ᄀᆞ올의는 날이 서늘허고 츄슈도 ᄒᆞ고 신물이 나옵네다

冬

冬ハ甚ダ寒イニヨリ柴炭ヲ無限ニツカヒマス

겨울은 심히 치우니 시탄을 무한이 쓰옵네다

年

コトシハヨノコトハセズシテ詞ケイコチンアシヤハセマシタ

올은 다른 일 아니ᄒᆞ고 말공부를 허니 다ᄒᆡᆼ허외다 (工夫 多幸)

豐年

豐年ガ連イテデキテ萬民ガ太平デクラシマス

풍년이 년허여 드니 만민이 태평으로 지내옵네다

凶年

凶年ガニカ〱ジウシテ百姓ドモカクワシエヌヤウニナリマシタ

흉년이 참혹허니 빅셩들이 못살개되얏솜네다 (慘酷)

今年

今年ハ大豊年ニナリテ處々ノ修補サセウトゾンジマス

금년은 대풍년이 되야 쳐쳐에 슈보ᄒᆞ랴 허옵네다

去年 거년농ᄉᆞ는무던허던가시푸외다
去年ノ農事ハサウオウニアリタサウニゴザル

明年 명년시절은잘되리라허옵네다
明年ノ時節ハヨクデキヨート云ヒマス

翌年 이듬히〃지못헌다허니올치아니허외다
翌年マデナヲヌト云フニヨリキコエマセヌ

時 때가느자가매어서못고가소
時ガオクレルニヨリ早クスマシテユカレヨ

時節 시절이회복ᄒᆞ면족키죠흘새
時節ガタナナホサバサゾヨウブリマセウ（回復）

寒 날이추니방에드리옵소
日ガ寒イニヨリクツロニ入ラシヤレヨ（房）

凉 서늘허니좀이온다
スズシイニヨリチムリカキタ

冷

冷ケレバ濕カ出ル

닝ᄒᆞ면습이나ᄂᆞ니

熏蒸

天氣カムシマス

날이훈증허외다

溫

温デヨウゴザル

다ᄉᆞ허여ᄯᅩᆺᄉᆞ외다

和暄

今日ハノドカニゴザル

오늘은온화허외다 温和

暑

甚ダアツクシテモヤ〳〵シマス

심히더우니약약허외다

熅熱

余リ熱クテドーモタヘラレマセヌ

하무더우니ᄎᆞᆷ아견ᄃᆡ지못허겐네

正月

正月ハ十五日ガ第一デアリ大槩四時ノ佳節日ヲ記ス者ハ皆

정월은상원날이웃ᄯᅳᆷ이요대개ᄉᆞ시가절일긔는다 上元

七月	六月	五月	四月	三月	二月	
七月ニハ七夕ガアリ 칠월에는칠셕이잇고	六月十五日チ流頭ト云フ 뉴월보름날을뉴두라허느니라	五月ハ端午ガアリ 오월은단오가잇고	四月ニハ八日ガアル ᄉᆞ월에는팔일이인ᄂᆞ니라	三月三日ハ大イナ名日デアリ 삼월삼일은큰명일이요	二月ニハ寒食ガアル 이월에는한식이인ᄂᆞ니라	太陰曆ヲ以テ云ヒシモノデゴザル 태음녁으로니름이올시다

八月

팔월에는 츄셕이인ᄂᆞ니라

八月ニハ秋夕ガアル

九月

구월구일을 즁양이라 허고

九月九日ヲ重陽ト云ヒ

十月

시월은 아무 명일은 업쓰나 일년 즁 샹ᄯᆞᆯ이라 허고 선조에 시제허고 ᄇᆡᆨ신에 치셩허ᄂᆞ니라

十月ハ何ノ名日ハナケレドモ一年中ノ上月ト云フテ先祖ニ時祭ナイタシ百神ニ致ス誠ヲ

(時)

十一月

동지ᄯᆞᆯ은 동지 잇셔 폿죽 쑤기를 슝샹허옵네다

十一月ハ冬至ガアリテアヅキ粥タクコトガハヤリマス

(冬至 崇尚)

十二月

섯ᄯᆞᆯ은 납평이 잇스매 ᄆᆞᆯ똥을 주엇다가 이듬ᄒᆡ 녀름에 다려 먹습네다

十二月ハ臘日ガアルユヱ馬糞ナヒロウテ翌年ノ夏ニセンジテ飲ミマス

(平)

百終今俗變ジテ百中トイフ

百終	冬至	寒食	名日	期年	閏月

閏月 閏月ハ三年ブリニ有リマス
윤달은삼년만에드옵느니

期年 一年ブリニカヘラレマスレドモ言バヲ皆學デ行レテ奇特ニゴザル
긔년만에도라가쓰나말을다빈화가시니긔특허외

名日 名日ハ月毎ニアリテ節日ヲ名日ト云ヒマス
명일은돌마다잇스니절일을명일이라허옵네다

寒食 寒食ハ二月カ三月カニアリテ介子推ナウヤモウ日デアル
한식은이월이나삼월이나이스되개즈취위(爲)훈날이니라

冬至 冬至ノ日ハ外方ノ守令ノ諸臣ガ京ニ向ヒテ肅拜イタス
동짓날은외방슈령졔신이망궐(望闕)숙비허느니라

百終 七月十五日ヲ百終トモ云ヒ中元トモ云フテ諸寺ニテ僧徒ガ佛供イタシマス
칠월보름날을빅즁(中)이라도허며즁원이라도허고모든절에서즁들이불공허옵비다

重陽	중양은 국화쥬를 먹습네다 重陽ハ菊花酒ヲ飲ミマス
臘月	납월 미일을 납형이라 허옵ᄂᆞ니 未ノ日ヲ臘享トイヒマス
元日	원일은 싀히 첫날이니 술이나 먹고 서로 세비(歳拜) 허는 날이라 元日ハ新歳初ノ日デ酒ナドヲ飲デタガヒニレウジヲ申ス日デアル
端午	단오는 남녀업시 그네를 쒸느니라 端午ハ男女トナクブランコヲノル
秋夕	츄석은 산(山)소의 가서 졔ᄒᆞ옵네다 秋夕ハ墓所ニ往テ祭マス
上弦	상현은 서편(西邊) 반(半)돌을 니르고 上弦ハ初ノ弓ハリ月ヲイヒ
下弦	하현은 동편(東邊) 반(半)돌이올세 下弦ハ後ノ弓ハリ月デゴザル

歲

年内ハ多用ニアルニヨリ年ガ明テカラアヒマセウ

세젼(歲前)은 다ᄉᆞ(事)ᄒᆞ니 세후(歲後)로 봅시다

周年

一年交代デゴザル

쥬(周)년 교톄(遞)로세

再昨年

一昨年來マシタニトウ交代前ニナリマシタ

직(再)작년에 나왓더니 볼서 과만(瓜滿)이 되얏슴네다

後明年

明後年ゴロスミマス

명후(後)명(明)년쯤 맛개슴네다

社日

社日ハ春秋ニアル

샤(社)일은 츈츄에 인ᄂᆞ니라

年限

コトシギリノ約條ヲ五年延ニシテ往キマス

년한 약됴를 오년 퇴뎡(退定)허여 가옵ᄂᆞ니

晝夜

晝 夜 朝 夕 今夕 昨夜

나존삼ᄉᆞ월이제일기외다
晝ハ三四月ガ第一ナガイ.

밤이져르매아침좀을잘자옵네다
夜ガミジカイユヘアサチチヨクシマス

아침에일즉니러나뒤마쥬를보면구름이맛치병풍천듯허외다
アレタハハヤクオキテ對馬州ヲ見レバ雲ガ丁度屛風ヲ立タヤウニゴザル

저녁때되면믹양도라가끄쟈ᄒᆞ시니그엇쎤일이요
夕方ニナレバイツモカヘロウト云ハレテソレハドーシタコトデゴザルカ

오늘져녁에말이나허게오쇼셔
ハナシナリトモスルユーニマヰアレマセ

어제밤은죵용이말숨허고와쓰니둇ᄉᆞ외다
昨夜ハ從容コルリト噺シ、テキマシタニヨリヨウアリマシタ

리 來字正音

陰　陽　曉　暮　早　晩　暗

날이더울제는그늘에안즈면시원허느니
日ノアツイトキハカゲニスハレバキミカヨイ

볏치돗뜻허니자리를셜고말이나허세
陽カ温カナニヨリオザナレキテハナシナリトモシマシヤウ

새벽에일즉니러납소
曉ニ早クオキナレマセ

져무도록놀고가니다힝허오
クレルマデ遊デユクニヨリ多幸デゴザル

※니일일즉드러오시게허옵쇼서
※日 アスハ早ク入テオ出デナサレルヤウニサレマセ

무슨연고로이리늣개야옵든고
何ノワケデカヤウニオソクマヰラレマシタカ
緣故

어둔밤은길가기무섭데
暗イ夜ハ道往クニオソロシウゴザル

明
アカルイ處デ仕事ヲスルヤウニナサレ
볼근데셔일허게허옵소

月明
月ガ明ラカナニヨリ思鄕之心ガマシマス
돌이볼그니ᄉᆞ향지심이더허외다

暎
玉ガアマリウツリテマバユクテスグニ見ラレマセヌ
구슬이하빗취니눈이부시여바로보지못허겐네

曝
此品ガシメツタニヨリヒナタニオイテカワカセヨ
이거시축축ᄒᆞ니볏테노와몰니여라

夕陽
夕陽ニトンデユク鳥ノ色ハクラブルモノガゴザリマセヌ
석양ᄯᆡᄂᆞ라가는가마귀빗ᄎᆞᆫ비헐세시업ᄉᆞᆸᄂᆞ니

平陽
明日平明ニ入テ來マセウ
ᄂᆡ(來)일평명에드러오ㅣ리다

久
久シブリニマミエテマコトニヨロコバシウゴザル
오래간만에뵈오니파연(果然)반갑ᄉᆞ외다

間字正音 간

者字正音 쟈

遲 速 暫 急 俄 嚮者 頃日

此ホンハ遲クウツシテ遣ハスニヨリサゾ無心オモハレマセウ
이칙(册)은더듸벗겨보내니족히무심이너기시올잇가

速ニイタサントスレドモ風邪ガハナハダシウテ只今コソデキマシタ
수이ᄒᆞ고져허되감긔(感氣)가대단(大端)허여이제야되얏습네다

チヨト來テヨッテ往カレマセ
잠싼(暫間)와ᄃᆞᆫ녀가쇼셔

急ニカ、ソントスレドモマハヅヨクデキマス
급히쓰노라허되밋처못되얏습네다

先刻入テ往アレバワクシテ出テクルニヨリ不思議ニゴザル
악가드러갓싸가이윽허여나오니슈상(殊常)허외다

サキニ申シ上ゲタ言サオ忘レナサレマスナ
향쟈(嚮者)에ᄉᆞᆯ온말ᄉᆞᆷ을닛지마옵쇼셔

頃日ハスサマジウモテナシナサレテカタジケナフ存ジマス
져즘(頃日)세장(壯)히뒤접(待接)ᄒᆞ시니감샤(感謝)허여이다

近間
요ᄉᆞ이부터계우츌입을허엿슴네다
近比ヨリヤウヤウ〱出入ナイタシマス

頃刻
경각ᄉᆞ이에글을화답허니민쳡허외다
ザンジノ間ニ詩ナ和答スルニヨリ敏捷ニゴザル

古
녯법을듯보와위션신의를효측허옵소 爲先 效則
昔ノ法ナ見聞シアマブ信義ナナラハレマセヨ

今
이제시졀은젼혀욕심만내니흔일업ᄉᆞ외다
今ノ時節ハ専ラ慾心バカリ出シテシカダガゴザリマセヌ

今日
오늘은총총허니ᄂᆡ일뵈옵시다 悤悤 來日
今日ハソワ〱イタスニツキアス目ニカヽリマセウ

夜間
밤ᄉᆞ이안녕허시니다ᄒᆡᆼ허외다
夜間ゴ安寧デ多幸ニゴザル

明日
ᄂᆡ일은국긔니못허게슴네다 來日
アスハ國忌デアヒナリマセヌ

翌日

其ヤウニタベテモ翌日マデ酔タコトハナイカ

그리먹어도잇튼날々지취ᄒᆞᆫ일은업ᄂᆞ냐

明々日

アサツテハ雨ガフリテモクダリテキマセウ

모레는비가올씨라도ᄂᆞ려오리다

明々後日

シアサツテハ宴享デアルニヨリサウオモハレマセヨ

글픠는연향이니그리아옵쇼셔

昨日

昨日ハデテコウトイハレテツイニオイデナサレヌソレハドウシタコトデゴザルカ

어제는나오마허시고죵(終始)시아니오시니그무슨일이요

再昨日

一昨日ハメヅラシイモノヲ下サレマシテ皆一同ニ澤山ニタベマシタ

그적게는귀(貴)헌거슬주시니다ᄒᆞᆫ가지로만이먹엇숩네다

初一日

朔日ハ道ニテチヨト逢ヒマシタ

초(初)ᄒᆞ론날은길에셔잠(暫間)깐만나보왓숩네다

初二日 초이튼날은 분요(紛擾)헌날이올세 (二日ハイソカシイ日デゴザル)

初三日 초사흔날은 놀고 갓습데 (三日ハ遊デ往マシタ)

初四日 초나흔날노 뎡(定)허게허옵소 (四日ニキハメルヤウニナサレヨ)

初五日 초닷쉰날은 집의이섯소 (五日ハ家ニ井マシタ)

初六日 초엿쉰날노 완뎡(完定)이되얏습니다 (六日ニキハマリニナリマシタ)

初七日 초일엣날쯤 긔별(寄別)이잇소오리 (七日コロハサウガアリマセウ)

初八日 초여드렛날노 물렷습데 (八日ニノビマシタ)

語	解
初九日	초(初)아흐렛날이사(移舍)허엿습네다 九日ニ移舍(ワタマシ)ヲイタシマシタ
初十日	초(初)열흘날은한가(閒暇)훈날이오니 十日ハヒマナ日デゴザル
二十日	스무날은경연(慶宴)을허랴허오니 ハツカハ慶宴チセウト存ジマス
眉月	미월은초싱돌을니름이라 新月ハ初テ生ズル月ヲ云フ
何日	어네날발정(發程)허랴허시오 何日ニ發程セウトナサルカ
其日	그날은유복(有福)훈날이라 ソノ日ハシアハセノヨイヒヂヤ
望	태음녁(太陰曆)으로는열닷쉰날을보름이라허거니와태양 太陰曆ニテハ十五日ヲ望ト云ヘドモ太陽

晦日

曆ハ晦朔カナカフ故滿月ニナル時ヲ望ト云マス
녁은회삭이드른고로만월ᄒᆞᆫᄯᅢ를망이라허옵네다

晦ハ其月ノオハル日デアリマス
그믐날은그ᄃᆞᆯᄆᆞ지막날이오니

儺

シハスノ晦ハ致賀モ云ヒ魔ハラヒモスルヲ儺トイヒマス
셧ᄃᆞᆯ그믐날은치하(致賀)도ᄒᆞ고마고치는거ᄉᆞᆯ나라허오

除夜

除夜ハ其年ノ終ル日ノ夜デゴザル
제야는그ᄒᆡᄆᆞ지막날밤이올세

夏至

夏至ハ一年中ノ日ノ第一長キヲ云ヒマス
하지는일년즁날이제일긴ᄯᅢ를니르옵네다

立春

立春ニハ吉慶ノ詩文ヲカイテ柱ゴトニ張ル
닙춘에는길경시문을써셔기동마다븟치ᄂᆞ니

初旬

十日マデニ回答ガアリマセウ
초순에회답이오리다

旬望間	순망간으로 물니자	十日十五日ノ間ニ延ヘウ
念	념젼에 될거시 념후에 되엿습네다 (念後)	廿日前ニナルノカ廿日スギニナリマシタ
念晦間	념회간에 시작ᄒᆞ면 잇셔허온닛가 (作)	廿日晦ノ間ニ始メタラバドウデアリマセウカ
朔	ᄃᆞᄃᆞᆯ이 무는 것시 만ᄊᆞ외다	月々ニツグナウモノガ多ウゴザル
食前	식젼에 오랴허다가 식후 되엿습네다 (食後)	朝飯前ニマヰラウトシテメシスギニナリマシタ
初更	초경후에 ᄆᆡ양 자옵네다 (後 每樣)	初更スギニイツモ子マセウ
半晝	ᄒᆞᆫ나졀 일허고 왓습네다	晝ナカ仕事シテマヰリマシタ

短日

日ガミジカウテコマリマス

날이져르니민망허오 憫忙

長

日ガ漸漸長クナリテユキマス

날이졈졈기러가옵비다

方位

東

東山ニアガリテ日ノデルヤウスヲミマセウ

동산에올나히돋는양보옵세 樣

西

西山ニ日ガカタムイタ

서산에히져간다

南

南方ニ頭ヲ置アテレバヨイトイヒマス

남방으로머리를두고자면돗타허옵ᄂᆞ니

北

北ヨリクル雁ノ聲ハタビノ懷ヲマシマス

북으로오는기러기소리는직회를터허옵네다 客

左 右 前 後 邊 表 隅

左ノ手デマネケ
왼손으로손쳐라

右ノ手デフレ
올흔손으로저어라

前ニタヽズシテヒザリテ立テ
압페셔지말고물너셔라

後便ニコトヅケテ遣シマセウ
후편에부쳐보내오리

海邊ニイキテアソバウ
바다々의가셔노쟈

オモテガウツクシイ
것치곱다

カドナマハツテ往マセウ
모롱이로도라가세

底 산밋틔방아ᄉᆡᆼ이놀기ᄌᆞᆺ소외다 山下タニカラウス杵ノ架レナヤウデゴザル

內 안은샹(傷)치아니허엿ᄉᆞᆸᄂᆞ닛가 內ハソンジハイタシマセヌカ

裡 속이미오둔둔ᄒᆞ다 ウチガキツウガタイ

隙 창틈으로엿보와라 窓ノスキカラノゾイテミヨ

隔 산과물이막켜쓰니가기어렵ᄉᆞ외다 山ト川ガ隔タリタニヨリ往キニクウゴザル

掩 ᄒᆞᆫ고개ᄆᆞ려쓰니ᄃᆞᆫ니기민망(憫忙)허외다 一ト坂掩フタニヨリアルクニ迷惑ニゴザル

遮 遮日 차일쳐라 ヒオヒセヨ

上	山ノウヘニアガレバ四方ガ皆見ヘマス	뫼우희오르면ᄉᆞ방이다뵈옵네다
房中	此房中ニ何カアルカ	이집속에무어시인는고
下	シタノ家ニ誰ガ在マスカ	아렛집에누구계시냐
中	中ハサシツカヘマセヌ	가온데는關係관계치아니허외다
外	外ニ出テ行カシヤレロ	밧게나가옵소
稜	イクカドカミラレロ	몃모인가보옵소
四方	四方ガ皆海デアルカ	ᄉᆞ방이다바다인가

四面

ᄉᆞ면이어,두니비가만이올새시푸오

四面ガ暗イニヨリ雨ガタントフラウカト存ジマス

中間

즁간의셔말ᄉᆞᆷ미지마오

中間ニテ言バチカザフレマスナ

空中

공즁빈말말게

アテドノナイ言云フナ

地理

地

쌍은북이놉다허옵네다

地ハ北ガ高イト云ヒマス

山

산세가웅장(雄壯)허면물이만타허옵네다

山勢ガスサマシケレバ水ガオホイト云ヒマス

平地

평디가너르미산이뵈지아니허오

平地ガヒロウテ山ガミエマセヌ

野

들에서놉세

野ニテ遊ビマセウ

郊

교외예나가산양이나허옵세 (郊外)

サトハヅレニ出テ獵ナリトモイタシマセウ

脫山

버서진산이옵도다

ハゲタ山デアル

峯

몃봉이나되는야

イクツ峯バカリアルカ

嶺

령을넘어가옵는지 (嶺)

トウゲヲコエテユカレルカ

巖

바위우희남기나니이상허오 (巖, 異常)

巖ノ上ニ木ガハエテフシギデゴザル

壑

굴렁이메엿싸

アナカウマッタ

窟	崎	石壁	塡	峴	岸	原
굴속이캄캄허오	산솟치잇셔먼데가뵈지안는다	석벽이심이험허구나	잘메여라	고개넘어둔니시니又부실듯허외다	언덕이놉파느리기절박(切迫)허다	언덕이놉푸외다
アナノ内ガウスグラウコザル	山ノサキカアリテ遠イ所ガミエヌ	岸石ガ甚險シイ	ヨクウメヨ	坂ヲコエテ通ハレテツカレラレマセウ	岸ガ高クテ下ダルニセハシイ	原ガ高フゴザル

丘　積　濱　礫　土　灰　埃

두던이다무너젓습네다
丘ガ皆クヅレマシタ

돌지악을주어다가ᄭᆞ러라
ジヤリヲ拾テキテシケ

물ᄭᆞ에고기낙싀라가쟈
水邊ニ魚ツリニユカウ

돌뭉이로쳐라
礫デウテ

흙글니겨라
土ヲフメ

짓놀니니문다두라
灰ガタツニヨリ戸ヲシメテヨ

몬지잘만침비가왓솝네다
ホリノタヽヌダケ雨ガフリマシタ

炭
숫업스면 겨울의 어려오리
炭ガナケレバ冬ガヘラレマスマイ

塵
틧글이 이시니 쓰러부려라
｜ガアルニヨリハイテステヨ

沙
ᄇᆞ람이 믜오부니 모래가 ᄂᆞᆯ니옵ᄂᆡ다
風ガキツウ吹ニヨリ沙ガトビマス

細砂
세사는 ᄇᆞ람이 됴곰 부러도 ᄂᆞᆯ니ᄂᆞ니
細沙(コマスナ)ハ風ガ少シ吹テモトブ

泥
진흙기뉜다
ドロカトンダ

乾
ᄆᆞᆯ난다
カワイタ

穴
궁기 몃궁기 나 잇ᄂᆞ냐
穴ガイクアナホドアルカ

石	怪石	花	谷	園	堰	洞
돌이ᄎᆞ니돌우희안ᄶᅵ마오 石カ寒イニヨリ石ノ上ニスハルナ	盆石괴석의나무심거라 盆石ニ木ヲウヱヨ	花草화초보시오 花ヲミツレヨ	방방곡곡을ᄎᆞᄌᆞ보와라 方々谷々ヲタヅネテミヨ	後園후원의ᄭᅩᆺ치픠여ᄡᅳ니구경허옵쇼셔 庭ニ花ガサキタニヨリ見物ナサレマセ	물〻논에방축을놉피ᄊᆞ면됴ᄉᆞ외다 水ノ田ニイセキヲ高ク築ゲバヨウゴザル	골ᄇᆞ람이어렵ᄉᆞ외다 谷アヒノ風ガキツウゴザル

路字正音로　里字正音리

彎字正音완　俗만

窖

日カサムケレバキシノ下ニサンカケチ結ンデヲルト云ヒマス

날이 ᄎᆞ면 언덕 밋ᄐᆡ 움을 뭇고 잔다 허옵네다

坎

タマリ水クメ

괴인 물 기러라

凹

此田ハクボツタニツキ水ガタマリサウニゴザル

이 논은 오목허기에 물이 괴일 ᄯᅳᆺ 시푸외다

地圖

地圖ヲ見レバ大綱ハ知レマス

지도를 보면 대강은 아옵느니

路程記

路程記持テ井ルカラ里数ハシレル

노정긔 가져 쓰니니 리수는 아느니라

沙汰

ヤマシホガデタ

沙汰 삿타 낫다

彎路

マハリ路チマハリテキテオクレマシタ

彎路 만노로 도라와셔 느저습네다

斜 石假山 江 海 河 嶋

사로는좁소오니
斜路 スヂチガイ道ハセバウゴザル

석가산을못가온데모와노니보기둇소외다
石假山 ツキヤマヲ池ノ中ニ集メオキタニ見カケガヨロコザル

江湖

강이어러쓰니우흐로거러갈쌧게업소외다
江カコホリタニヨリ上ヲアユミテ往クヨリ外ハコザリマセヌ

바다를갓셤건너단니시니과연피로오시리다
海ヲトタスラ往来ナサレテ果然マコトニゴメンドウデゴザリマセウ

이물이깁기가얼마나허릿가
コノ河ノ深サカイカホドアラウカ

이제셤으로도라가시니섭섭ᄒᆞ기마엽소외다
イマ島ニカヘリ往カレルニヨリノコリ多ホサカカギリゴザリマセヌ

福字正音 복

川

우리는내를건너기도어려워허옵네다
我々ハ川ヲワタルモ太義ニオモヒマス

澤

물이깁피피인거슬못시라허고죠곰피인거슬웅덩이라허옵네다
水ノ深クタマリタルヲサハト云ヒスコシタマリタルヲタマリミヅト云ヒマス

淵

못세끄기노는것보옵쇼셔
淵ニ魚ガアソブヲミラレマセヨ

池

못세끄기뛰는양(樣)이마장보기둣소외다
池ニ魚ノオドルヤウスガイコウミルニヨウゴザル

浦

마새놈들은헤염을못허는놈이별(別)노업는니
浦住ノ者共ハオヨギノデキヌ者ハコレトナイ

津

나、루건널쎼바룸이사나오면긔운(氣運)이거북(去福)허오
ワタシヲワタルトキ風ガアレケレバコヽナカアンウゴザル

灘

여울은 물이 미오엿숩네다

セハ水カヒドウアサウコザル

溪

시내〻의 안자 발자무고 술먹으면 됴소오니

溪川ノタニスハリテ足チツケテ酒ノメバヨウコザル

泉

심이 솟숩네다

泉ガワキマス

井

우물은 깃도록 몰그니라

井ノ水ハ波ホドスム

溫井

온정은 겨울에도 싈으니 꼬이허외다 (井) (恠異)

溫泉ハ冬デモワイテアフレギデコザル

水

물셔오너라

水クンデコヨ

波

물결이 흉용허니 ᄇᆡ를 내여 놋치말라 (洶湧)

ウナバラガアフイニヨリ船サダスナ

源　派　氷　滑　潮　澌　汐水

此水ノ根源ハ是ヨリ幾里バカリニナリマスカ
이물근원은예서몃니나되옵는잇가

アノ眞中ハ水カ幾筋ホドニナリマスカ
져한가온데는물이몃쏠기나되는고

氷ノ上ヘハスベリアルカレマセヌ
어름우는밋쓰러워둔니지못허옵네다

水ニフミソコナフテスベリマシタ
물의실족(失足)허여밋쓰러졋슴네다

シホカミチマシタ
물이밀엇슴네다
小潮ハ上下弦ノ時ヲ云フモノヂヤ
조금은상하현때를니르미라

日ガ寒クテ氷フソートスルナウス氷ト云ヒマス
날이치워어름이얼냐허는거슬성에라ᄒᆞ옵네다

シホガヒタカ見ワレヨ
물이켜는가보소

沙汀 사뎡에물결이툭툭치옵네다 ミギハニ波ガドン〱ウケマス

洲 쥬는강ᄉᆞ이에셤이니라 洲ハ江ノ間ダノ島デアル

水宗 슈종넘엇습는가 渡中コエマシタカ

渠 미쳔을처라 ミゾサラヘヨ

灣 물구븨가너르외 水灣ガヒロウゴザル

瀑布 폭포ᄂᆞ려지는양(樣)이웅장(雄壯)ᄒᆞ다 タキノ落ルヤウスカスサマジイ

清 물이하몰그니큰꼬기업ᄉᆞ오리 水ガアマリ清キニヨリ大ナ魚ガ居マスマイ

邊	히변(邊)마이라도허고또그릇세도마이잇새니 海ヘンノホトリトモ云ヒ又ウツハモノニモマハリカアル
滓濁	쯕긔셔쓰니마만이두어라 カスガ浮イタニヨリジットオケ
濁	술이흐리니병(瓶)을안쳐두어라 サケガ濁タニヨリトクリニスヘテオケ
濤	파도가니러난다 波濤ガ起ッタ
水道	슈도를파야집이상(傷)치아니허느니라 水道ヲサラヘテコソ家ガ損ジヌ
水患	슈환(患)으로ᄒᆞ야길을새로닷가습네다 水損デ道ヲ新ニツクリマシタ
礁石	쵸셕(礁石)은무섭소오니 暗礁ハオソロシウゴザル

江水

江ノ水ハカワクアリマセヌ
강물은쏘지아니허오

水貌

漏

水ガ漏ニヨリ破レタカミヨ
물이식니새야젓는가보와라

滋

コレカフエタニヨリ水ニツケタカ
이거시부러쓰니물의둠갓셔냐

涌

水ガ涌カミツレヨ
물이솟는가보소

溢

溢ル、ニヨリソレマデニツゲ
넘으니그만부어라

滴

手ニ水ガシタダル
손의물이듯는구나

濕 深 沈 汲 灑 廣 洗

저저쓰니볏테몰여라 シメリタニヨリ陽タニホセ

깁픈ᄆᆞ음을뉘알니 深イ心チ誰ガシラウカ

물에돔가라 水ニツケヨ

물기러부어라 水汲デツゲ

씃남게물셔다가ᄲᅳ려라 庭木ニ水汲デツゝゲ

이물너뷔는壯장허외다 コノ水ノヒロサハスサマジウゴザル

ᄂᆞᆺ씨서라 カホアラヘ

流 물흘너가는소리는凄涼처량허외다 水ノ流レテ往ク音ハサビレウゴザル

注 통에물부어라 桶ニ水モレ

泗 혜염ᄒᆞ는양을보니果然과연긔특허외다 オヨギヲスルヤウスヲミルニゲニモ奇特ニゴザル

泡 물겁품이인다 水泡ガ立ツタ

溺 물에빠진거슬다건져내여라 水ニハマツタモノヲ皆スクヒダセ

漬 防築방축이허여져물이나베 イセキガツイヘテ水ガ出マス

涵 물속에좀기여도혜염허니異常이상허다 水中ニシヅンデモオヨグニヨリアヤシイ

舟楫

水鈴
雨サヘ急ニフレバ水玉ガ立ナスマ
비곳급히오면물쌩울이지베

浮
アノ水ニ浮ミ往クモノガ何カ見ワケヨ
져물에셔가는거시무어신고솔펴보라

淺
淺イ人トハモノ云フモスキマセヌ
엿튼사룸파는말허기실소

龍字正音 룡

龍宮
龍宮ハ龍神ガオホイソウニゴザル
뇽궁은뇽신이부지기수로잇는가보외다（不知其數）

臘雪
十二月ノ雪ヲタクハヘテオイテ夏ツカハウ
납형（臘享）눈을간직ᄒᆞ야두엇싸가녀름에쓰쟈

米泔水
米ノトギ汁ニ白砂糖ヲ入レテノメバ痲疾ニヨロシイト云ヒマス
미감수（泔水）에셜（雪）쌍을너코먹으면님질에됴타허옵네다

舟 ᄇᆡ ᄐᆞ구 가쟈 舟ノリテユカウ

帆 돗슬 ᄃᆞ러라 ｜ヲカケヨ

檣 돗대가 너무 크다 檣ガアマリフトイ

櫓 노를 저어라 ｜ヲオセ

筏 나무시른 ᄠᆡ라 薪ツンダ筏ジヤ

柁 ᄇᆡ키 묵으로 ᄃᆞ리노아라 ᄂᆞ리쟈 カジダ橋ヲワタセアガラウ

碇 닷 주어라 イカリ入レヨ

泊 ᄇᆡ대여라 舟ツケヨ

快船 ᄲᆞ른ᄇᆡ트고몬져가쟈 早ヤ船ニノリテサキニユカウ

注乙 줄주어라 ツナヤレヨ

渡 다건너왓느냐 皆渡シテキタカ

船頭 니물에셔셔ᄇᆡ다힐셰를솔피라 オモテニ立テ船ツケル所ヲワキマヘヨ

船梢 ᄇᆡ고물에두어라 船ノトモニオケ

小船 져근ᄇᆡ는ᄇᆞ롬이잔잔ᄒᆞ여야됴ᄉᆞ오니 小船ハ風ガナイデコソヨウゴザル 殘々

卸蓬	帆ヲオロセヨ	돗지워라
樯房	檣房ヤグラニアガラウ	장방에오르쟈
水疾	船ノリテ來テフナヨヒヲシテシナウトイタシマシタ	비ᄐᆞ고오다가 水疾 슈질을허여죽을쎈허엿숩비다
上弓竹	帆ゲタカ太イ	활ᄯᅢ가크다
風席	帆ムシロカセバイ	돗자리좁우니라
龍層注乙	手縄ガ丈夫ナカ	농층줄이 實실헌가
釘	フナクギハチシマシマスナ	삼뎡은악기지마옵소

船食 빈쌥을 먹겨라 マキハダヲウテ

橋板 조판을 노와라 アユミヲカケヨ

左往 노아가쟈 オモカヂ

右往 대여가쟈 トリカヂ

直往 바루가쟈 ヨウソロ

人品

兩班 (兩班) 냥반인줄 모르고 말을 홈부로 허니 패씸ᄒᆞ다 レキ〳〵ト云フワケヲ知ズシテ モノヲ ミダリニ云テ フラチニゴザル

常人	商賈	行商	市人	民	軍	兵器

輕輩ハ禮儀ヲシラヌ
샹인은 인亽를 모르더라 (常人 人事)

商人ドモガナカゴロハ以前ヨリ見テハ甚シウアリマス
샹고들이 요亽이는 젼보다 심허데

ナカゴロハアルキ廻リテアキナヒシテクウモノガオホゴザル
요시는 돈니며 장亽ᄒᆞ야 먹는사ᄅᆞᆷ이 만숩데

町人ノ子孫ハ何ノツトメモナリマセヌ
시졍(市井)에 ᄌᆞ손은 아모버슬도 못허겟숩네다

百姓ドモガ地方官ヲウヤマヒマス
ᄇᆡᆨ셩들이 관원(官員)을 공경(恭敬)허옵ᄂᆞ니

軍人夫ハイカホドアルカ
군亽는 몃치나 잇는고

兵器等ハアマタユヘ一々シリマセヌ
병긔들은 여러가지 매낫낫치 모름네다

丁

장뎡을 쌔여셔 치와라
壯ンナ者ヲエランデツカヘヨ 丁

奉足

봉죡허는 쟈가 만소외다
手助スル者ガ多ウゴザル 奉足

使令

소령 불너 잡아오라구 닐너라
使令ヲヨビアトラヘテコヨトイヘ

鰥

홀노 잇는 홀아비올세다
ヒトリヰルヤモメデゴザル

寡

과부는 절을 직희니 긔특허다
寡婦ハ節ヲ守リテ奇特ニゴザル

孤

외로이 지내오니 측히 민망허올가
ヒトリデクラサレテサゾナンギデゴザラウ 憫忙

獨

혼자 계시니 심심허시오리다
獨リ在マスニヨリサビシウゴザリマセウ

覡

ホサミヲレタカ 박슈를보왓슴나

巫

ミコニ聞テミマシヨ 무당의게무러보소

客

オ客ガ來テ在ニヨリ何ナリトモコレヲヘヨ 손님이와계시니아무거시나쟝만허여라

隱士

隱士ハ及第ヲキラウテカクレテヰル人デゴザル 은ᄉᆞ는과(科擧)거를실희여숨어잇는사ᄅᆞᆷ이로세

道士

道士ハ山谷ニ住ミ道德ノアル學者デアル 도ᄉᆞ는산쏠에살꼬도덕이잇는션(先輩)ᄇᆡ니라

英雄

天下ノ英雄デゴザル 텬하영웅이로세

豪傑

豪傑ナ人ハスクナウゴザル 호걸에사ᄅᆞᆷ은젹ᄉᆞᆸ네다

戯子

희ᄌᆞ란거ᄉᆞᆫ온갓ᄌᆡ조를ᄌᆞ미잇게허옵셰 (才操, 滋味)

ケウゲンシト云フモノハスベテノゲイヲオモシロイヤウニシマス

優伶

광대노는양이보기돗데 (㨾)

アヤツリシテ遊ブヤウスガオモシロウゴザル

師

자네는놈의스승이볼셔되여쓰니깃브데

ソナタハ他ノ師匠ニトクナラレタニヨツテコハレウコザル

學究

학구는뎨ᄌᆞ를잘ᄀᆞ르쳐셩취허게허는사ᄅᆞᆷ이로세 (成就)

學究ハ弟子ヲヨク教ヘテモノニナルヤウニスル人デゴザル

中媒

중민란거ᄉᆞᆫ혼인ᄉᆞ이에드러결연을시기는사ᄅᆞᆷ이올세 (結縁)

中ダチト云フ者ハ婚姻ノアヒダニ入リテ縁ヲ結バスル人デゴザル

卜者

복자를쳥허여졈을시겨봅소 (請)

卜者ヲマネイテ占ヒヲサセテミラレヨ

僧

저즁놈을잡아귀들새둘너라

アノバウヅヲトラヘテ耳ヲヒキマハセ

尼

尼トイフモノハ女ノ僧デアル
승이란거슨계집즁이오니

匠

職人ハナニノ匠人ナニノ匠人ガアリマスカ
장인은무슨장인과무슨장쇡(色)이잇숩는가

冶匠

鍛冶匠モアリ
뒤졍장이도잇고

鑄

鑄物匠モアリ鍋鑄匠モアル
놋썻쟝이도잇고솟장이도잇느니라

海夫

アマドモガ水ノナカニテアハビトルヤウスヲミラレヨ
헤부들이물속에셔싱복(生鰒)싼은양(採)을보소

漁夫

漁夫共ガ魚ヲイカホドトッタカ
어부돌이고기를얼마나잡앗셔냐

獵者

獵師共ガスベテノカリヲナレマス
포슈(鉋手)들이온갓산양을허옵네다

白丁
빅뎡이란거슨쇼와개를잡는놈이오니 (白丁)
エタト云フ者ハ牛ト犬ヲコロスモノデアル

牙保
흥정이란거슨주름을소이에너허야허옵ᄂᆞ니
アキナヒト云フモノハスアヒヲアヒダニイレテコソイタシマス

日者
왈쨔란거슨심이패려헌사롬이라 (日者 悖戾)
男ダテト云フモノハ甚ダ放蕩ナモノデアル

樵夫
져쵸부더러길을무러보소 (樵夫)
アノキコリドモニ道ヲ問テミラレヨ

翁
나만은하라비니치지마소
年ヨリタヾザデアルニヨリタヽカレルナ

媪
할미불너라
バヽヲヨベ

性
이사롬은셩식이슌량허외다 (性識 順良)
コノ人ハ性質ガヨロシウゴザル

稟

アノ人ハ性稟ガタンキニシテ未錬ナ人デゴザル

져사롬은셩픔이퍅(愎)허고미련헌사롬이로세

聖

聖人ガ出サレマセバ麒麟ガ出ル

셩인이나시면긔린이나느니

賢

ケカゴロミレバスグレタ人ガスクナウゴザル

요ᄉᆡ본즉어진사롬이젹숩데

仙

仙人ガ蓬莱山ニ集リテ碁ヲウツトイヒマス

신(神)션이봉닉산에뫼여바독둔다허옵네다

仁道

人ハ常ニ仁道ヲ行フアコソヨウコザル

사롬이샹에인도를힝ᄒᆞ여야올소외다

能

必スグレタフリセズタレカニセラレヨ

부듸능헌데(體)말고착(着)실(實)이허소

察

必事チツキマヘテセラレヨ

부듸일을솔펴허옵소

謀

져사룸은꾀쓰는사룸이니밋쎠못허올네

アノ人ハアチスル人ジヤニヨリタノミニナリマセヌ

圖謀

미리도모를잘허여두옵쇼셔 圖謀

アラカジメハカリコトヲヨクシテ置レマセ

勇

이사룸은미오놀낸가시푸외다

コノ人ハヒドク勇氣ナツウニゴザル

健者

세찬놈을샹주게허옵소 賞

ツヨイモノニハウビヲ下サルヤウニナサレマセ

智

자네는지혜만은사룸이니어런이허올가

ソナタハ智慧ノ多イ人デアルニヨリオロソカニセラレウカ

鈍

져사룸은둔허여세돗지못허ᄂᆞ니

アノ人ハ鈍ニシテ悟リエマセヌ

聰

그대토록총명허기쉬올잇가

サホドマデ聰明ナギコソヤスカリマセウカ

吝字正音 림

慧	敏	才	德	懶惰	貪	吝

アナタノ子息ハ聰慧ナト云フニヨリアヒタウゴザル
공의 아들이 총혜ᄒᆞ다 ᄒᆞ니 보와지다

敏捷ニゴザル
민첩ᄒᆞ외다

才ノスグレタ人デゴザル
ᄌᆡ조操용ᄒᆞᆫ 사ᄅᆞᆷ이로세

他ニ德澤ヲホドコレアコソヨウゴザル
놈의게 덕ᄐᆡᆨ을 깃쳐야 올흐니라

我々ハモトヨリ不精ニレアキノドクニゴザル
우리는 근根본本게으르니 마엽소외다

貪心ノナイ人ハスクナウゴザル
탐심업는 사ᄅᆞᆷ은 쉽ᄊᆡ 아니ᄒᆞ오니

人ガアノヤウニ吝嗇ニレアドコニツカハレウカ
사ᄅᆞᆷ이 져리 닌쇡ᄒᆞ고 어ᄃᆡ ᄊᆞ리

慾

욕심(慾心)만내여든일이되느냐

慾心バカリ出セバ事ガナルカ

功

어ㅣ그거시공교(工巧)롭다

エ、コレハ功ナ

妙

과연(果然)묘허거든

マコトニ妙ナ

術

술(術)을내여부리는톄(體)마소

智畧ダテシテツカフフリサレルナ

愎

어ㅣ그것퍅(愎)헌인물이로다

エ、コレハタンキナ人物デアル

詳細

부듸일을ᄌᆞ세(仔細)이허소

必事チクハシウセラレヨ

汎濫

져사ᄅᆞᆷ은눈을보니범남(汎濫)헌사ᄅᆞᆷ인가시푸외다

アノ人ハ目付チ見ルニイカツガマシイ人サウデゴザル

姦

져놈은심이간악허니무셥소외다

アノモノハ甚姦惡ナニツキオソロシウゴザル

繁華

동경ᄯᅡᆼ은마장번화헌가시푸외다

東京ヘンハモットモ繁華ナソウニゴザル

儉朴

이사ᄅᆞᆷ은검박허니오른일이올세

コノ人ハ儉朴ナニヨリ尤ナコトデゴザル

詐

그쟈는姦詐간사ᄒᆞ야못부릴놈이라

コノ者ハセサガシコウシテツカハレヌヤツジヤ

福

사ᄅᆞᆷ의게는복이읏ᄯᅳᆷ이오니

人ニハ福ガ第一デゴザル

剛毅

자네는굿센사ᄅᆞᆷ이기에부듸강의지심을죠심허소

ソナタハツヨイ人デアルニツキ必剛毅之心チッ、シマレヨ

操心

惡

모진사ᄅᆞᆷ은ᄭᅩᆯ도보기실소외다

アレイ人ハスガタチミルモスキマセヌ

悖惡	저놈이거름것는양을보니심이패악헌가시푸외다	アイツガアユム樣子ヲ見ルニ甚オホヤウナサウニゴザル
柔	부드럽고유화헌사롬이야돗소오니	柔カニシテ柔和ナ人コソヨウゴザル
拙	어ㅣ요것졸망이로다	オホコレハ拙キモノデアル
愚癡	어리석게구지말라	オロカナコトヲ云フナ
烈 (烈字正音 렬)	이제라도렬녀가이쓰니아니귀허온가	今デモ烈女ガアルニヨリメヅラシイデハゴザラヌカ
迷惑	어ㅣ이거시미혹헌거시로다	エヽコレハタワイナイデアル
劣 (劣字本音 렬)	그것시용렬허여아모데도쓸데업는거시로다	ソレハ庸劣ニシテドコニモ用ヰドコロノナイモノデアル

優	勤	倦	倨慢	踈略	狃	愚者
속이미오녁녁허다	자네는미ᄉ가부지런허니긔특허외다	계을너낫좀자기예학질(瘧疾)어덧는가시푸외다	요ᄉ이는관즁하인들이미우거만ᄒ야뵈옵네다	어ᅵ그사룸소략헌사룸이로다	자네버르시과연(果然)고약허다	미련헌사룸은속키결단허는일이업느니
内ガイコウヒロイ	ソナタハ毎事ガチンゴロナニヨリ奇特ニゴザル	倦テヒルチレタニツキオコリナフルフサウニゴザル	ナカゴロハ館中ノ下人ドモガキツウ倨慢ニミエマス	エヽコノ人ハ踈畧ナ人デアル	ソナタノクセハゲニモ奇怪ナ	未錬ナ者ハ速ニ決斷スルコトガナイ

八朔

八朔バカハハズカレイワケヲ知ラヌ

파삭이는붓그러온줄도모르고니

厭者

スカヌヤツ共ハオヒダセ

보기시른놈들은쏫ᄎᆞ보내라

識

此人ハ事ヲ知タ人デアル

이쟈者는일아는사ᄅᆞᆷ이로다

官爵

皇帝

―ハ天下ノ聖主デオザル

황뎨는텬하셩쥬ㅣ시니라

王

國王ハ一國之王デ各々國ヲ守リテオザナサル

인군人君은일국지왕이라각각나라를직희여계시니라

君

―ハクニノ庶子ト王ノ堂内之親ヲ封レ君ニマス

군은나라서ᄌᆞ와왕의당ᄂᆡ지친을봉군ᄒᆞᄂᆞ니

東宮	皇太子	世子	皇后	王妃	大君	諸侯
東宮ハ世子ノ在マストコロヲ東宮ト云ヒマス 동궁은세ᄌᆞ계신데를동궁이라허옵네다	皇帝ノ嫡子デゴザル 황태ᄌᆞ는황뎨큰아들이오니	王ノ嫡子デゴザル 세ᄌᆞ는인군(人君)에큰아들이오니	皇帝ノ妻御デゴザル 황후는황뎨안히시니라	王ノ妻デゴザル 왕비는인군(人君)의안히오니	クニノ嫡子ヲ大君ニ封ジマス 나라뎍ᄌᆞ를대군을봉허옵네다	諸侯ハ功臣ヲ封ズルコトデゴザル 제후는공신을봉허미올세

道字正音 도

度字正音 도

宰相

ᄌᆡ상은 일국경ᄉᆞ를 부지런이 ᄒᆞ여야 가위 ᄌᆡ상이라

宰相ハ一國ノ政事ヲチンゴロニイタシテコソイハユル宰相デアル

可謂

御使

어ᄉᆞ가 단니면 각읍슈령이 조심ᄒᆞ옵ᄂᆞ니

ゴタシロ付ガマハレバ各邑ノ守令ガツヽシミマス

操心

ᄯᅩ 슈ᄉᆞ라도 칭ᄒᆞᄂᆞ라

又繡使トモ稱ス

勅使

칙ᄉᆞ는 위의가 금즉ᄒᆞ오니

勅使ハ威儀ガスサマシウゴザル

使臣

ᄉᆞ신은 사ᄅᆞᆷ을 ᄀᆞᆯ희여 보내시옵베다

使臣ハ人ヲエランデツカハサレマス

監司

감ᄉᆞ는 일도방ᄇᆡᆨ이라 칭ᄒᆞ옵ᄂᆞ니

監司ハ一道ノ方伯ト稱シマス

兵使

병ᄉᆞ는 병마절도ᄉᆞ오니

兵使ハ兵馬節度使デゴザル

水使

슈ᄉᆞ를 슈군졀도ᄉᆞ라 허고

水ーヲ水軍節度使ト云ヒ

僉使

부산쳠ᄉᆞ를 겸슈군졀졔ᄉᆞ라 칭허옵ᄂᆞ니

釜山僉ーヲ兼水軍節制使ト稱シマス

守令

슈령은 군슈현령현감을 니름이라

守令ハ郡守縣令縣監ヲ云フ

臣

신하가 만ᄉᆞ오되 착헌 사름이 드무오니

臣下ガ多ケレドモスグレタ人ガマレニゴザル

士

션비(先輩)가 부지기수(不知其數)로 뫼왓ᄉᆞᆸ네다

學者ガオビタダシウアツマリマシタ

職

무슨 벼ᄉᆞᆯ 허여게시온잇샤

何ノ職ヲナサレテゴザリマスカ

位

공(公)은 무슨 가ᄌᆞ(加資)를 허여게신잇샤

アナタハ何ノ位ニナリテゴザリマスカ

任業

소임은 무슨 소임을 지닉신잇새 (所任) ツトメハ何ノツトメヲスグサレマシタカ

業

자네 아들은 무슨 소업을 시기려 허는가 ソナタノ子息ハ何ノ所業ヲ申シツケヤウトオモハレルカ

差定

무슨 소임을 차뎡허엿센듸 밧비가오 (所任 差定) 何ノツトメヲサシアテラレタラバ急ニユカレルカ

役

하인들이요 시역ᄉᆞ가 만키로 못견듸여 허네 (役事) 下人共ガナカナカ公役ガ多クテタヘエマセヌ

長者

어룬을 보면 사ᄅᆞᆷ마다 ᄃᆡ접허옵ᄂᆞ니 (待接) 長者ヲ見レバ人ゴトニモテナシマス

通事

통ᄉᆞ의 언제 드런는가 通事ニイツナリタカ

醫員

의원의게 뫽뵈고 약이나 자시옵소 醫員ニ脉見セテ藥ナリトモアガリマセ

畫員
화원을 請청허여 그림 어더 주소 (畫員)
畫工ニタノンデ畫ヲ求テ下ダサレヨ

內醫
닉의는 나라 의원이니라
內醫ハ國ノ醫員デアル

書吏
셔리는 셔울 뵉각ᄉᆞ와 ᄉᆞ도 아젼을 셔리라 허옵ᄂᆞ니
書吏ハ京ノ百各司ト四都ノ衙前ヲ書吏ト云ヒマス

四都
ᄉᆞ도는 강화 송도 슈원 광쥬라
四都ハ江華松都水原廣州ジヤ

君子
군ᄌᆞ는 불견 쇼과라 허새든
君子ハ不レ見ニ小過ヲト云フ

近侍
근시는 대전에 근시허는 사람을 니름이라
近侍ハ大殿ニ近侍スル人ヲ云フ

公役
공역을 始시作작허여 틈이 업숩네다
公役ヲハジメテヒマガアリマセヌ

太上王

御隠居王ハ春秋ガ高フゴザナサレマス
태상왕은 츈츄가 놉푸시외다 太上王

太上王妃

御隠居王妃モオトレヨリアレ在シマス
태상왕비도 늘거계시니이다 太上

諸王

皇帝ノ子息サ諸王ニ封ジマス
황뎨 아들을 졔왕을 봉허옵느니

文武守令

府尹ハ文官デアリ牧使府使郡守判官縣令縣監察訪
부윤은 문관이요 목ᄉᆞ 부ᄉᆞ 군슈 판관 현령 현감 찰방
等ハ或ハ文官或ハ武官デアリ僉使萬戸權官別將等ハ皆
들은 혹 문관 혹 무관이요 쳠ᄉᆞ 만호 권관 별쟝 들은 다
武官デゴザル
무관이오니

監牧官

監牧官ハ馬ヲツカサドル地方官デアル
감목관은 몰ᄎᆞ지허는 관원이라 欠知 官員

天倫

祖父 조부가계신지아니계신지 ヂヽガ在マスカ在マサレヌカ

祖母 조모가계신가아니계시온가 バヽガイマスカイマサレヌカ

父母 부모를셩기고효도를심써허는거시힝실(實)에웃듬이오니 父母ニツカヘテ孝道ヲツトムルガ行状ノ第一デゴザル

父親 ᄂᆞᆷ의게양ᄌᆞ간사ᄅᆞᆷ은제친부는유동슉질과ᄀᆞᆺᄊᆞ오 他ニ養子ニ往タ人ハ其身ノ親父ハ猶同叔姪ノ様ナモノデヲザル

長子 ᄆᆞᆺ아들은멧ᄊᆞᆯ이나되엿는가 長男ハ何年計リニナリタカ

兄主 형님의말을드르니긔특허외다 兄サマノオ言ヲキクニヨリ奇特ニゴザル

弟

아우가멧치나잇는고

弟ガイクタリホドアルカ

親

어버이게효양허는형뎨로세

オヤニ孝養スル兄弟デゴザル

族

결네들이만흐시오

親類ガ多ウゴザルカ

叔父

슉부가여러분이온가

叔父ガゴ多ウゼイデゴザルカ

叔母

슉모는다섯분이올세

叔母ハ五人デゴザリマス

姪

놈의족하를함씨라허느니라

他ノ姪チ咸氏ト云フ

女姪

족하딸이거번(去番)에와서보고갓습네다

メヒガサキゴロ來テ逢テ往キマシタ

夫	妻	女	男	女息	子	曾孫
지아비를셤기는일은삼강즁에잇느니라	안히는빅년을히로허니오샹에잇는일이라	계집은문밧세나는일이업느니라	ᄉᆞ나희는닙신양명ᄒᆞ야이현부모허ᄂᆞ니라	딸ᄌᆞ식은시집으로가는거시셧셧헌법이니라	ᄌᆞ식은어려서부터츙효를마르치쇼	증손이여러시매얼구를다아지못허옵네다
夫ニツカヘルコトハ三綱ノ中ニアル	妻ハ百年ヲ偕老シテ五常ニアルコトジヤ	女ハ門外ニ出ルコトガナイ	男ハ立身揚名ヲ以顯父母ト云フ	ムスメハシウトノ家ニ往クコトハキマリタ法デアル	子共ハ幼少ヨリ忠孝ヲ教ヘラレヨ	曾孫ガ多ウイ故顔ヲミナミシリエマセヌ

婦

며느리는 내나흔ᄌ식보담더귀허오니

婦ハ吾カセツタ子息ヨリモナホダイジニゴザル 貴

姉

맛누의는 가ᄉ를힘써허니거룩허오

姉ハ家事ヲツトメテスルニヨリスキマレウイザル

婿

사위는 놈의ᄌ식이라 빅년손이오니

婿ハ他ノ子息デ百年ノ客デゴザル

舅

시부를효힝으로셤기옵소

舅オヤニ孝行ニツカヘワレヨ 父

妹

손아레누의는 아직나히어려서 시집가지못허엿네

妹ハマダ幼少ニテ嫁入イタシエマセヌ

姑

시어먼님이 늘거계시외다

シウトメサマハヨリテ年在マシマス

兄嫂

큰아지먼님이 ᄌ손만당허외다

兄嫂サマハ子孫ガ満堂マシタ

弟嫂	弟嫂サマハワカケレドモ萬事ガスクレマス	격근아지먼님이년쇼허시나범절이갸륵허오	年少 凡節
妻男	女房ノ兄弟ガ妹聟ヲヒドクトリモナマス	쳐남이믜부를믜오되접허옵데	夫 待接
女同婿	アヒ婿ガ互ニナカヨイニヨリ家内ガ和睦シマセウ	동서가서로죠아허니집안이화목허오리	同婿
査頓	縁者カ各別スグレマス	사돈이믜오어지오	査頓
婚姻	婚姻ハ門閥ヲ擇デイタシマス	혼인은문벌을골이여허옵ᄂᆞ니	
奠鴈	ムコ入スルトキ奠鴈スル鴈デゴザル	댱가갈셔뎐안허는기러기로세	
嫁	コメ年ニナレバ夫ヲ迎ヘマス	과년되면서방맛습비다	過年 書房

伶字正音 령
俐字正音 리

天倫 一 交隣須知巻之一 四十二

改嫁

再嫁ハ輕輩ニ多クアル
ᄀᆡ가는 샹놈에 혼이 잇는니라 (改嫁 常)

配匹

天ノ定シ配匹ジヤト云ヒマス
텬뎡비필이라 허옵네다

上典

ダンナハ父母ノ如キジヤ
(上典) 샹뎐은 부모 갓트니라

朋友

友ニ交ルナラバ有信ヤウニシアコソヨウコザル
벗을 사귀거든 유신케 허여야 올쏘오니

僕

ケライカ無狀ナニツキタノミニナリマセヌ
(從) 종놈이 무상허기예 밋씨 못허옵네다

奴

奴ハカカツヨクアコソツコフニキミヨウゴザル
ᄉᆞ니 (從) 종은 심이 셰여야 부리기 시원허외다

婢

婢ハキリヤウカヨクアキザンガキヽテコソヨウコザル
계집 (從) 종은 ᄆᆡ자허고 (伶俐) 녕니허여야 됫쏘오니

雇

ヤトヒモノハ根本ヲ知テツコウテコソヨロシイ

고공(雇工)사리허는사룸은근본을알고부려야올흐니

嫡室

本妻ハ奴僕ヲヨクツカヒマス

뎍실(本妻)은노복을잘거느리옵네다

庶

庶子ハ妾ニデキタ子息デアル

서ᄌᆞ는첩의게나은ᄌᆞ식이라

義父

義父ト云フモノハ義ヲ以テ定メシ父デゴザル

의부란거슨의로정헌아비올세

養子

養子ハ自身カウミタ子共カナクテ至親ノ間ダカラヨリ取テキテ己ガ子息ニスルカ養子デゴザル

양ᄌᆞ는친(親)이나은아들이업서지친간에다려다가친(親)ᄌᆞ식만든거시양ᄌᆞ올세

子息

子息ヲ早クマウケラレテヨロコバシウゴザル

ᄌᆞ뎨(子弟)를일쯕두시니깃브오

甥

小ジウトカタハ萬事ナスナホニナサレマス
오라번님은 ᄆᆡᄉᆞ를어질게허시옵비다 每

處

婚姻セヌムスメナ處女ト云フ
셩혼젼ᄯᆞᆯ을쳐텨라니르ᄂᆞ니 成婚前

汝

汝ハサキニイケ
너는먼져가거라

君

キミハ留守レナイフレ
그ᄃᆡ는집을짓키고잇소

我

私方ニハ子共ガ五人デアリ孫ガ多ウゴザル
내게는아들이다섯시요손ᄌᆞ가여러시오니 子

吾等

吾等ハ國ノコトヲ毎日奔走イタレマス
우리들은나라일노ᄆᆡ일분주허옵비다

他

他ノ人ハ京ニ住テ祿ヲハンデ高官ヲツトメテ井マス
다른니는셔울가녹먹고놉푼벼슬허엿습비다

某

아모기는 급뎨를 헌다 허옵네다

某ハ及第ヲスルト云ヒマス

此

여긔는 풍토사나와 오래 잇써 못 혈 곳지올세

コヽハ風土ガアレクレテ久レク居ラレヌ處デゴザル

伊

제 엇지 허여 내게 미몰구는고

アレガ何レニ我ニ無情ニ云フカ

其

그 쇼년이 잘 싱겨쑈

ソノ少年ガヨク生レツイタ

姓

조선은 셩이 여러 셩이나 니 김 최 안 뎡 박 뉵 셩이 고뒤지 셩이오니

朝鮮ハ姓ガ数多ノ姓ガアレドモ李金崔安鄭朴ノ六姓ガ古来之姓ヲ有マス

自

절노 되는 일이 돗타

自然トナルコトガヨロシイ

姓本

셩과 본은 시조계시든 데를 니른 말이올세

姓ト本ハ始祖ノイマシタ處ヲ云フ言デゴザル

字

字ハ名ノ字ノ意ヲ見テ作ル

ᄌᆞ는 일홈ᄯᆞ 뜻슬 보와셔 짓ᄂᆞ니라

別號

別號ハ名ト字ヲ作リシ外ニ別ニ作リテヨビマス

별호는 일홈파 ᄌᆞ 지은 외예 별노 지어 부르옵비다

彼漢

カレハ前ヨリリコウナ者デアル

져놈은 젼붓텀 슬거온 놈이로다

此漢

コノモノハカルイ者ナレドモ眞字ト諺文ヲ知テ奇特ニゴザル

이놈은 常상놈이로되 진書셔와 언문을 아니 긔특허외다

厥

カレガ改過トイフニヨリ怒ヲヤメラレヨ

궐이 ᄀᆡ과헌다 허니 노를 긋치소

父

汝ガ父ト同年デアル

네아비와 ᄒᆞᆫ동甲갑이로다

母

母ニツイテユク

어마니를 ᄯᆞᆯ아 간다

同生	彼輩	半子	頭	項	額

동싱(同生)과 방불(彷彿)허거든
弟トニテヰル

져사룸네가 허무허외다
アノ人タナガアンウコザル

반즈는 사위를 두고니른 말이라
半子ハ婿ナサレテ云フ言デアル

頭部

머리를 추게 허면 두통이 업습는니
ツモリチヒヤセバ頭痛ガレマセヌ

명박기에 샹토쏫슴비다
項ニワケチユヒマシタ

니마에 점(點)이 잇슴비다
額ニキズガアリマス

見出し	한국어	日本語
顱	머리에석히슴어쓰니빗서업게허여라	頂(ツジ)ニシラミガ子チウミツケタニヨリスキテナクナセ
目	눈이빅ᄉᆞ외다	目ガ明ニゴザル
瞳	동ᄌᆞ(瞳子)가둘이올시다	ヒトミガ二ツテゴザル
眼包	눈섭써리은힝셥셜ᄌᆞᄉᆞ외다	マブタガ銀杏ノ皮ノヤウニゴザル
眸	눈망올이둥굴다	目ノマハリカマンマルイ
白睛	흰ᄌᆞ(子)우에불근뇌육이잇숩네다	白玉ノウヱニ赤イ肉努ガアリマス
黑睛	거믄ᄌᆞ(子)가누루외다	黑玉カキナウゴザル

努肉	뇌육이 젹고 눈이 빅소외다	努肉ガスクナクテ目カスミマシタ
眶毛	속눈썹이 긴 사ᄅᆞᆷ이 젹습세	マツ毛ノ長イ人ガスクナウゴザル
眉	눈썹이 납의 눈썹이 ᄀᆞᆺ도다	眉ガ蝶ノ眉ノヤウナ
面	눗치 얼고 검고 씽긔연베	顏ガツヅリテ黑クテシカンデヰル
顏	얼구리 곱소외다	顏ガウツクシウゴザル
鼻	코에 대고 냄식를 맛타봅소	鼻ニツケテ嗅ナカイデミラレヨ
鼻頭	코씃테 쥐가 긔여 간다	ハナノサキニ鼠ガハウテユク

鼻孔
ハナノスノ毛ヲヌカレヨ
코ᄭᅮ영에털을ᄲᅩᆸ소

鼻脊
小鼻ガ高クテ相カヨウオザル
코ᄯᅳᆼ이놉프니샹이죳ᄉᆞ외다

耳垢
耳ノ垢出サレマセ
귀여지내옵소

鼾
鼾チキツウカクカツキヽトモナクテ側デ子イルコトカデキヌ
코를미우고니득세시려겻테셔좀잘슈업싸

捧鼻
ハナフクコトチメツタニスレバヒトカミテキタナウオモヒマス
코풀기를ᄒᆞᆷ부루허면놈이보고터러이너기옵너니

耳
耳カ遠ウテキゼキニゴザル
귀먹어답답허외다 沓々

耳郭
耳ノワカ厚イニヨリ長壽イタサレマセウ
귀ᄡᅡᆨ귀둑새으니장슈ᄒᆞᆯ뜻허외다

鬂
귀밋털이세엿숩비다
ビン下ノ毛ガ白ミマシタ

髭
웃날우슬소미로닥삽소
ウハヒゲヲ袖デフカレヨ

鬚
아릐날우시기니풍신이둇소외다
下タ鬚ガ長ウアトリナサガヨウゴザル
風身

勒鬚
굴레나룻시녀름이면듬듬허오
ハウヒゲガ夏ニナレバウルサウゴザル

禿髮
뒤머리는보기실숩비다
ハゲアタマハ見トモアリマセヌ

咽喉
목이메여말이나지아니허오
喉ガツマリテ音ガ出マセヌ

白髮
흰털이만이나니마렵소외다
白髮カヨケイニハエアカユウゴザル

鬚髯

クナヒゲガ三尺アリテモ衣食ガ足リテコソレキ〳〵ノフリカヂキル

슈염이석자라도의식이족히야냥반질허는니라 鬚髯 兩班

瞬

マタヽキスルアヒダニユキガタカ知レマセヌ

눈깜쫙일ᄉ이예부지거처올시다 不知去處

面腫

カホノデキモノガ甚シウゴザル

면종이대단허오 面腫大段

眼疾

眼疾ガデマシタ

안질이낫니

身部

身

身ガ肥マシタ

몸이비둔허오

骨髓

骨髓ニテツシテ忘レラレマセヌ

골슈에비여닛지못허옵네다

骨

骨ガフトケレバ力ガ多クテ仕事ヲヨクスルト云ヒマス

쌔가굴그면심이만아일을잘훈다허옵데

肌

肌ガ柔ニレテヨウゴザル

솔이부드럽쏘옷소외다

皮

人ニ皮肉ト云フ言ハ云ヘドモカワト云フ言ハイヒマセヌ

사롬의게피육이란말은허되가죽이란말은아니허옵너니

力

力ガツヨイヨリ壯士デアル

심이세니장소로다

肩

肩ニカタゲテユカウ

엇세예메고가쟈

筋

筋ガ少イニヨリ力ガ弱イサウナ

심쑬이적으니심이약헌가시푸다

手
손에 단단이 쥐고 가거라
手ニ丈夫ニ握リテユケ

臂
풀에 심이 만으니 활 쏘기를 닉키면 잘 쏘으리다
ヒヂニ力ガ多イニヨリ弓射ルコトナナラフタラバヨクイヨマセウ

腕
손목 쥐고 홈게 가옵시
腕ヲ握リアトモニ往マセウ

指
손새락에 뎡죵(腫)이 낫숩네다
手ノ指ニ疔ガ出マシタ

一指
엄디 손새락에 밥풀 무덧싸
オヤ指ニ飯粒ガツイタ

二指
둘재 손새락의 지거 맛봅소
人サシ指ニツケテ味キカレヨ

三指
글씨 쓸제 닉리 긋는 획은 장새락의 심이오니
字ヲカクトキタテニ引ク劃ハタカク指ノ力デゴザル

四指	五指	腋	掌	手背	爪
비재손새락으로연지부르는양이어엿싸다 (ベニサシ指デ紅粉ヲツケルヤウスカ嬌嬈カハヒラシイ)	석세손톱이기려코와귀쑤셔영위비기좃소오니 (小指ノ爪ガ長クテ鼻ト耳ノスチエグルニヤウゴザル)	념페세끄가쟈 (ワキノ下ニハサンデユカウ)	손바당을폐옵소 (手ノハラチヒロゲラレヨ)	손똥의무사마귀잇다 (手ノ甲ニイボガアル)	손톱밋테든가시는알끄도념통에미친거손모르는사롬이올세 (手ノ爪ノ下ニタテタツゲハ知リアモ心ノ臓ニツキタルモノナ知ヌ人デゴザル)

手紋	手ノ筋カ横ニツタツテアルニヨリ福カアリマセウ 손금이ᄀᆞ루건너가쓰니복이잇ᄉᆞ오리
胸	胸ニ滯リテクダラヌニヨリ何トイタサウカ 가슴의체ᄒᆞ야ᄂᆞ리지아느니엇지허올고
乳	乳ニカタマリカアルニヨリナラシテヨソヨウアリマセウ 젓세몽울이이쓰니푸러야돗ᄉᆞ오리
指節	指ノ節カフトイ 손ᄆᆞ듸가크거든
背	背カカガンダニヨリノベワレヨ 등이꼬부니폐옵소
腰	腰ガ痛ムニヨリヤスンデ往マセウ 허리압푸니쉬여가식
腹	腹ガフトウゴザル 비부로외다

膀	빈셥이 크고 깁구나 ホツガフトクテフカイ
臂 肘	폴쑴치를 닷치니 압푸다 ヒジニアタリタニイタム
膝	膝甲ノ盜賊デゴザル 슬갑도적이올세
臑	アユムコトヲ遠ク步ミタニ 거름을 멀니 거러왓더니 ヒツカガミガイタミマス 오곰이 압푸외다
背	身カ肥タニツキ背骨カ見エヌ 몸이 솔씌기에 등무루뼈가 아니뵈네
跟	ダンナノセンタクスレバ足ノキビスカ白ムト云ヒマス 上典 상뎐의 셜내ᄒᆞ면 발뒤축이 흰다 허옵네다
足	발이 저리다 カシビレタ

桃骨 복ᄉᆞ뼈가부어도ᄃᆞᆺ숩니다
クルブシノ骨ガ腫テモ走リマス

足掌 발싸당이솔씨면거름을못것고여위면잘것숩너니
足ノウラガコユレバアルカレマセズヤセレバヨクアユミマス

肉刺 발의틔눈이나셔촌보(寸步)도움죽이지못허옵네다
足ニマメガデキテ一寸モウゴカレマセヌ

脚 다리압푸니두두려주어라
足ガ痛イニヨリタヽイテクレヨ

心 ᄆᆞ음이바르면ᄒᆞ는일을다올케허옵는니
心ガスグケレバスルコトナ皆モツトモランウレマス

肺 폐경이열허여그런가시푸외다
肺ガ熱シテサヤウサウニコザル

肝 간화가셩힝셔눈이어듭ᄉᆞ외다
肝火ガ盛ニシテ目ガクラミマス

膽	脾	胃	腸	膀胱	腎	氣

분(憤)이 하나니 담이 셜니는구나
腹ガアマリ立テ膽ガフルフ

비위가 혹 상(傷)허오리
脾胃ガ或シクハイタミマセウ

위경에 체잇서 음식이 맛업소외다
胃經ニ滯リカアッテ飮食ノ味ハヒカアリマセヌ

간장인들 엇지 견듸오리
肝腸ヲヤトイフテモドウシテコタヘマセウカ

오좀통에 습열이 처져습네다
膀胱ニ濕熱カレミマシタ

신경이 허(虛)ᄒᆞ니 보약을 자시면 낫ᄉᆞ오리
腎經カオトロヘタニヨリ補藥ヲアガリタクハヨクナリマセウ

긔운이 방셩(方盛)이로다
氣運カサカリデアル

血

혈긔만싸외다 血氣ガ多ウゴザル

呼

숨을내쉬옵소 息ヲツカレヨ

吸

숨을드리급소 息ヲヒカレマセ

脉

진ᄆᆡᆨ허니ᄆᆡᆨ이미우약허외다 脉 診察スルニ脉カイカフ弱フゴザル

息

쉬면둣거니와몸을과하놀니면도루여병나기쉬우니 過 ヤスメバヨケレドモ身ヲヒドク休メレバ却テ病カ出ヤスウゴザル

太息

한숨을치쉬니그엇쩐일이오닛까 タメ息ヲツカレテソレハドーシタコトデゴザルカ

命

슈인ᄉᆞ후에ᄃᆡ텬명이라허옵ᄂᆞ니 修人事後待天命ト云ヒマス

夢 汗 唾 涙 瞬 涕 拭

夢ハタワコトガ多ケレドモ邯鄲ノ夢ハタレカナサウニゴザル
꿈은거즛일이만으나한단몽은분명(分明)헌가시푸외다

汗ガユケイニ出レバ一身ノ津液ガヌケルニヨリヨウゴザリマセヌ
땀이만이나면일신에진익이ᄲᅡ지니됴치아니허오니

ツバハ必灰吹ニ吐キ壁ニハカレマスナ
춤을부듸춤통의밧고ᄇᆞ룸ᄡᅢᆨ에밧지마옵소

涙ハ眞情デ悲シヨリコソデルモノデゴザル
눈물은진정으로설어야나는거시올네

一瞬千里ト云フニヨリ離別モ暫クスレバヨウゴザル
일순철리라ᄒᆞ니니별도잠싼(間)ᄒᆞ면됴소오니

風邪デハナシルガデテドウモメンドウニゴザル
외갈으로콤물이나니참아괴롭소외다

カナシメバハナ汁ト泪ガイカニ拭フテモ無限デアトメラレ
설으면콤물눈물이아모리씨서도무한이나금(禁)치못

音 허올베（ナセヌ）

聲ハ天下皆同ジケレドモ音デ云フ言ハ違フ惟異
소리는 텬하다 ᄀᆞᄐᆞ되 소리로 허는 말은 다르니 ᄭᅩ이

響 허외다（ゴザル）

コダマノ應ズル音ハ甚ダハヤイ
산쏙에 마주치는 소리 심이 셰르다

喧 ワヤワヤ云フテサワグニヨリクワシク聞コヘマセヌ
숫셜거려 요란허니 ᄌᆞ세이 듯지 못허올세
擾亂 仔細

屎 押切ノ柄ホドノ糞ヲ綠クズニナルヤウニ洗フテモニホヒハデマス
작ᄯᅮ ᄌᆞ루 만ᄒᆞᆫ 똥을 실오리되게 씨셔도 범신는나 옵비다

瀉 腹カクダリマス
똥을 즛치옵비다
又 泄瀉 설샤

放 鳴腹 夢泄 舌 唇 齒 股

小便シテユカウ
오좀누고가쟈

時長(ヒサシク)シケレバ腹ノ内ニ聲ガシテ虚(スク)ユヱ風ガ入リマス
시장허면비ᄊᆞᆨ에소리나서허ᄒᆞᆼ매ᄇᆞ롬이드옴느니

精氣ガ衰(オトロ)ヘタ故夢泄スル
정긔가쇠ᄒᆞᆫ타스로몽셜허느니라

舌ガミジカイ
셔가쪄르다

(クチビル)ガアツイ
입살이둣겁세든

齒ガ白クテ見カケガヨウゴザル
니가희니보기됴소외다

股ニ腫物ガアキマシタ
ᄉᆞᆺ테부름이낫습네다

夢覺

가위눌녀윈몸에땀이낫습네다

ユメニオソハレテソウ身ニ汗ガデマシタ

五臟

오장은심파간파비와폐와신이요

五臟ハ心ト肝ト脾ト肺ト腎デアリ

六腑

뉵부는담파위와대장파쇼장파방광파삼쵸니라

六腑ハ膽ト胃ト大腸ト小腸ト膀胱ト三焦デアル

形貌

形

형상을보니녜ᄉᆞ(例事)사ᄅᆞᆷ아닌가시푸니누구냐

形狀ヲ見ルニヨノツネノ人デナイソウニアルガ誰デアルカ

樣

모양이바르고기울지아니허오

模樣ガマツスグニシテユガミマセヌ

儀

거동(擧動)이냥반(兩班)인지좀테사ᄅᆞᆷ아닌듯허여뵈옵네

立フルマヒガレキ〳〵デアルカナホザリナ人デナイサウニ見エマス

像 鑠 健壯 強 剛 弱

상이됴ᄒᆞ니시위허는별군직과션젼관ᄒᆞᆯ사ᄅᆞᆷ인가시프외다
相ガヨロシイニヨリ侍衛スル別軍職ト宣傳官ヲスル人デセウ

ᄂᆞᆺ테주름이만이자편스니늘것는가보외다
カホニシワガヨケイニヨリテ年ヨリタサウニゴザル

건장허니절머서부터숙셩ᄒᆞ얏는가시프외다
健壯 夙成
スコヤカナニヨリワカイトキヨリ早クモノニナラレタサウニゴザル

허는양이강헌사ᄅᆞᆷ이올세
樣
スルヤウスガ強ヒ人サウニゴザル

굿센사ᄅᆞᆷ이로세
ツヨイ人デゴザル

신약허니일싱보약을쓰옵네다
身ガ弱ヒニヨリ一生補藥ヲ用ヰマス

秀

놈의게 쌔여나니 긔특허외다

他ニ秀テ奇特ニゴザル

嘲

쑹긔시니 술의여 허신가 보외다

レカマシルニヨリキラハレルサウニゴザル

壯

장뎡(壯丁)을 집에 만이 두니 든든 허여 념녀(念慮) 업소외다

サカンナ男チ家ニタソトオイタニヨリタシカニシテキヅカイガゴザラヌ

肥

술이 쪄니 아마도 됴리(調理)를 잘헌 덕(德)인가 시푸외다

肥タニヨリドーデ養生ナヨクシタカゲカトオモヒマス

瘦

너무 여위여 계시니 음식을 잘 허여 잡숫게 허시옵쇼셔

アマリ痩テ在マスニヨリ飲食ナヨクシテアカルヤウニナサレマセ

憔悴

ᄂᆞᆺ치 쵸취허시매 몰나보왓숩네다

カホガヤセオトロヘラレマシタ故見ソンジマシタ

焦

ᄆᆞ음을 다ᄆᆞ르게 ᄒᆞ야 ᄉᆡᆼ각(生覺)허옵소

心ナ皆コガスヤウニシテ思案ナサレヨ

老少 稚子 小童 嬰兒 童孩

늘거도 ᄆᆞ음은 졈ᄊᆞ오니
年ヨリテモ心ハワカウゴザル

졀믄사ᄅᆞᆷ은 쥬ᄉᆡᆨ을 삼가야 올으니라
ワカイ人ハ酒色ヲツヽシンデコソヨロシイ

어린거ᄉᆞᆫ 아무 셈도 업ᄂᆞᆫ이라
ヲサナイモノハ何ノ了簡モナイ

이 쇼동은 시죵(侍從)을 부즈런이 ᄒᆞ니 장ᄂᆡ(將來) 사ᄅᆞᆷ 되오리
コノ小童ハツトメテチンボロニイタスニヨリサキ〳〵人ニナリマセウ

ᄋᆞ희(兒孩)들이 쇼ᄌᆞ치 ᄌᆞᆯ낙질을 ᄒᆞ옵네다
子供ガ牛ノヤウニアバレルコトナイタレマス

이 ᄋᆞ희(兒孩)가 잘 싱긴거니와 어버이 업다 ᄒᆞ니 불샹(不祥)ᄒᆞ오
コノワランベガコソウマレツキタレドモ親ガナイト云フニヨリ憫然ニオザル

이 ᄋᆞ기 볼셔 나가셔 웃ᄉᆞᆸ네다
此子ガトクカタツテワラヒマス

影 淨 美 好 陋 醜 垢

그림자는사름을ᄯᅡ르ᄂᆞ니 (カゲボウシハ人ヲシタフ)

몰그니조출허다 (キヨクレテキレイナ)

아름답기한업스니말이나오지아니허외다 (メデタイコトガ限リナクシテ言葉ガ出マセヌ)

됴혼거슨골려내엿다가석기지말게허라 (ヨイモノハエリテ出シテ交ヘヌヤウニセヨ)

더러우니어서아서라 (キタナイニヨリ早クノケヨ)

醜츄허니눈의뵈지말게허여라 (見ニクイニヨリ目ニカヽラヌヤウニセヨ)

垢셔를물셔다가씨서라 (垢ヲ水汲デアラヘ)

黶
ソノアザハイカウフトクテメヅラシウイザル
그 사마귀는 마장 크니 貴 귀허외다

嗆喉
ムセテコマリマス
북밧쳐어려외

揖
立アガリテ揖シナサレ
이러서 셔 읍허옵소

失音
聲ガカレテキセキナ
실음 허니 답답ᄒᆞ다
失音沓沓

羽族

鳳
金鳳釵ヲアタマニサセ
금봉차를 머리에 ᄶᅩᄌᆞ라

凰
鳳凰ハ神雀デアルニヨリ見タイ
봉황은 신작이니 보고지고

鸞 翡翠 鶴 鵬 孔雀 鴛鴦 鶯

鸞鳥ハドーゴザルカ
난도는 엇더허온고

翡翠ハ色ガウツクシウゴザル
비취는 빗치곱ᄉᆞ외다

鶴ニ乘タ仙人モアルト云ヒマス
학ᄐᆞᆫ 신션(神仙)도 잇다 허옵터이다

大鵬ハ一日ニ九千里ヲ往ト云フ音ガゴザル
대붕은 ᄒᆞ로 구만(萬)리를 간단 말이 잇ᄉᆞᆸ네다

孔雀ノ尾ハ戰笠ニサシマス
공작의 ᄭᅩ리는 벙거지에 ᄭᅩᆺᄉᆞᆸ네다

鴛鴦一トツカヒ綠水ニアソブヨウスヲミラレヨ
원앙 ᄒᆞᆫ 쌍(雙)이 녹슈에 노는 양(樣) 보옵소

鶯ガ柳ノウヘニ遊ビ片々タルコガネデゴザル
ᄭᅬᄭᅩ리가 버들우희 노니 조각조각 금(金)이올비

鸚鵡

잉무는사롬입내를허니이상(異常)허외다

鸚鵡ハ人ノ口マチナレアフシギニゴザル

鴈

장가(丈家)갈쎄기러기는업지못헐법이로세

聟入スルトキ雁ハナクテナラヌ法デゴザル

鷹

이매는길을잘드렷숩네다

コノ鷹ハヨクカヒツケマシタ

鵂鶹

부엉이소리는제일음을부루옵네다

フクロフノ聲ハ己レガ名ヲヨビマス

鶻

송골매는놉버기옷뜸이오니

ハヤブサハ早イコトガ第一デゴザル

鷂

새매는불파(不過)참새나잡지길드려쓸데업느니라

ハイタカハワヅカ雀ドモナトレ飼テヤクニタヽヌ

鵰鷲

수리는아무거서나츠기를잘허는큰새니라

ワシハ何デモツカムコトヲヨクスル太ナ鳥ヂヤ

鷺字正音로

鶩

집오리는 빗치 곱ᄉᆞ외다
アヒルハ色ガウツクシウゴザル

白鷺

白鷺ヤ 腹立タ 烏ガ 汝カ 白イ色ヲ ネタマウ
뵉노야 셩번가 마귀가 네 흰빗출 부러헌다

慈鳥

小鳥ガ 群ヲナシテ 舞フテユク
갈가마귀가 ᄯᅦ를 지어 ᄂᆞ라간다

鵝

タウガンハ家ニオケバ 盗賊ヲワキマヘル
거위는 집에 두면 도적을 ᄉᆞᆯ피ᄂᆞ니

野鴨

野鴨ハ 遠クマヒ アヒルハ 鈍ニシテヨクマヒエマセヌ
들오리는 멀니 놀고 집오리는 둔ᄒᆞ야 잘 놀지 못허ᄂᆞ니

鳶

雨ニヌレタトビハ 古ツヅレヲ キタヤウニアル
비마진 솔개는 헌 누덕이 닙은 것 ᄀᆞ트니

鷗

カモメハ 魚ヲ ヨクトリヘテクヒマス
ᄀᆞᆯ매기는 고기를 잘 잡어먹슴비다

鳩　鶏　鵄　鶺鴒　鵜　鳥　雀

鳩ハ雌雄タワムレヲヒタスライタシマス
비둘기는 암수가 희롱(戱弄)을 즈루허옵느니

鶏ハ時ヲ知ル鳥デ村家ニテヨケイニ飼ヒマス
독은 쌔를 아는 새니 촌가에서만이 기름데

鵄ハ年ワカクシテリコウナ人サ京畿ノメキシト云ヒマス
나히 어리고 약은 사롬을 경긔가 투리라 허옵느니

鶺鴒ノ油ハヨイ薬トイヒマス
사두새의 기름은 됴흔 약이라 허옵네다

ウノトリハ水中ニテ魚ヲトルニヨリ奇妙デゴザル
거문오리는 물속에서 고기를 잡으니 신통(神通)허외다

鳥ナキ島ノカウムリデアル
새업는 섬에 박쥐로구나

雀カサワグニヨリ日カタケタサウニゴザル
참새가 지져귀니 날이 느젓는가 시푸외다

烏

가마귀는 열ᄯᅮ가지 소리를 ᄒᆞᆫ다 허옵네다
（烏ハ十二色ノ聲ヲナスルト云ヒマス）

燕

제비는 삼월삼일에 나와서 구월구일에 도라간다 허옵네다
（燕ハ三月三日ニ出テキテ九月九日ニ返ルトイヒマス）

鷦鷯

뱁새가 황새 거름을 ᄯᅡ라가기 ᄌᆞ구나
（ミソサザイガ鸛ノアルクニツイテ往クヤウナコトヂヤ）

鵁鶄

쟈고란 새는 남경 ᄯᅡᆼ에 만타니릅네다
（鵁鶄トイウ鳥ハ南京ノ地ニオホイトイヒマス）

胡燕

명ᄆᆡᆨ이 집지은 것슬 보니 사ᄅᆞᆷ도 담을 그쳐럼 ᄊᆞ으면 ᄭᅳ올ᄯᅳᆺ허외다
（アナツバメガ巣ヲ作ルノヲ見ルニ人モ石ガキヲアノヤウニツケバウツクシウゴザル）

[illegible]	杜鵑	鶉	列鳥	鶺鴒	鵠	卵
フナ鳥ガ空中ニウカンデ羽サヽタ、ツ 부람가비 공중에서 놀개 친다	ホトヽギスガナイテ人ノ心ヲオドロカス 졉동새가 슬피우니 사ᄅᆞᆷ ᄆᆞᄋᆞᆷ을 놀넨다	鶉ガ秋季候ノコロハ野ニ下リテキマス 못추르기가 츄슈쌔는 들에 ᄂᆞ려옵ᄂᆞ니	キタヽキハクサツタ木ヲタヽク 쌔뎌구리는 썩은나무를 두두리ᄂᆞ니	イシタヽキハ谷河ノホトリニテ尾ヲフツテウロタヘテトビマハリマス 할미새는 시내ᄭᆞ에셔 ᄭᅩ리치고 덤벙여ᄂᆞ라 동기옵네다	クグヒトイフ鳥モアリ白鳥トイフ鳥モアリマス 곤이란새도 잇고 ᄇᆡᆨ죠란새도 잇슴네다	卵ヲカヘス 알셰온다 又 卵ヲカヘサセヨ 알을안겨라

雛
병아리가 ᄆᆞ티게 ᄌᆞ랏다
ヒヨコガ全タウフトッタ

觜
부리로 좁기를 잘허거든
クチバシニテツヽクコトヲヨクスル

啄
촐라리 ᄃᆞᆰ의 입이 될ᄶᅵ연정 쇼의 뒤는 되지 말라
イッソ鷄ノ口ニナルトモ牛ノシリヘニナルナ

羽
매는 뉴월 ᄯᅳᆷ 깃슬 군다 허옵네다
鷹ハ六月コロ羽ヲカヘルト云ヒマス

翼
ᄂᆞᆯ개 깃스로 ᄡᅳ러 노아라
翼サノ羽デ掃テオケ

距
ᄃᆞᆰ기 싸올 쎄 돕으로 잘 ᄎᆞ옵데
鷄ノケアフトキ爪デヨクケリマス

巢
깃드린 져 새가 아마도 ᄉᆡᆨ기 치려 허는 가시 ᄑᆞ외다
巢ナカケルアノ鳥ガドウデモ子ヲモタントスルサウニゴザル

栖	剽掠	鳴	鳥死	鳥餌	雀噪	土浴
アノ松ノ枝ニ巣ヂカケタ 저솔새지에깃드렷다	鷹ガ雉ナケッヂニカリウドガオフアユク 매가꿩을ᄎ니산양군(軍)이쫏ᄎ간다	鳥カ鳴ア己レカ友ナアツメル 새가울어셔제벗을모흐거니	鳥モ死スル時ハ悲シウ鳴ク 새도죽울셔는슬피울거니	鳥ニ餌チカヘ 새를밥먹겨라	雀カ竹林ニア噪グニヨリ日ガ入ルサウニオザル 춤새가대수풀에셔지져귀니히가지는가시푸외다	鷄ガ砂ナ水アビテ埃カ立ツ 둙이복(伏)음(吟)자리치니몬지가니러난다

飛去

나라가는저새가산에막키여간데업소외다

トンデユク アノトリガ山ニカクレテ往方ガゴザリマセヌ

鵲

아침에가치가우니길혼일이이쓸듯허외다

旦ニカザヽギガナルニヨロシイコトガアリサウニゴザル

吉

鶴

황새는리도크고모질기로비얌을먹고똥누면깃드

オホ鳥ハセイモフトクニクワレワテ蛇ヲ食フテ糞スレバ巣ヲ

鶴

린나무가다죽는다허옵네다

カケタ木ガ皆枯レルト云ヒマス

黃鳥

황도는쐬쐬리뉴로되몸이크오니

黃鳥ハ鶯ノ類ナレドモ身ガフトウゴザル

刷羽

깃다듬는다

羽虫トル

鴈

기러기는양긔를쏫ᄎᆞ동기옵네다

鴈ハ陽氣ヲシタウテマワリマス

正誤

○七丁オ二行 올ハ올ノ誤 ○三十一丁オ七行 숄ハ숀ノ誤

○十三丁オ二行 졈ハ쳡ノ誤 ○三十八丁ウ六行 쓸ハ쓸ノ誤

○十五丁ウ六行 マセウハマスノ誤 ○四十三丁ウ七行 졈ハ뎜ノ誤

○十六丁ウ五行 イキテハユキノ誤 ○五十一丁ウ五行 듯ハ둑ノ誤

オハ表

ウハ裏

再刊交隣須知卷之一 終

再刊交隣須知卷之一追正誤

○一丁ウ二行 맛지ハ맛치ノ誤

○二丁オ三行 긔역ハ귀역ノ誤

○四丁オ五行 디ハ지ノ誤

○五丁ウ三行 쳔ハ뎐ノ誤

○廿丁オ六行 난ハ낫ノ誤

○廿四丁オ七行 온ハ은ノ誤

○廿六丁オ六行 긔ハ끠ノ誤

○三十丁オ七行 들ハ를ノ誤

○三十三丁ウ六行 올ハ을ノ誤

○三十六丁オ二行 칭ハ칭ノ誤

○四十丁オ六行 코리ヲ年ハ年코리ヲノ誤

○五十丁ウ六行 갈ハ갑ノ誤

○四十一丁ウ三行 몰ノ下 시ヲ脫